

息山 李萬敷의 學問形成과 交遊樣相 一考察

-嶺南 南人系 學人을 中心으로-

金 周 富*

<目 次>

1. 序論
2. 李萬敷의 家系와 南人系 學脈
3. 尙州圈 西厓系 學人과 交遊
 - 1) 柳成龍 및 尙山三老 後裔와 交遊
 - 2) 尙州의 士人層과 交遊
4. 安東圈 葛庵系 學人과 交遊
5. 江右地域 南冥系 學人과 交遊
6. 結論

<국문초록>

본고에서 연구할 息山 李萬敷(1664~1732)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기를 살아간 재야학자이다. 그는 생애의 전반기 34년은 한양에서 살았고 후반기 36년은 영남에서 보냈다. 식산가의 가계와 혼반관계를 살펴보면 근기와 영남지방의 남인계 명문가와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기지역은 성산이씨·삭녕최씨·전주이씨 등이고, 영남지역은 영천이씨·의성김씨·풍산유씨 등이다. 식산가의 학통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유성룡 계열 및 근기남인계의 정구-허목-정시한 계열이고, 시문은 남인계 문인인 이민구와 조목을 계승하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jooboo731125@hanmail.net

식산과 영남남인과의 교유관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상주권 서에게 학인과 교유이다. 식산은 유성룡의 증손녀와 혼반관계를 맺음으로써 상주 노곡에 이거하여 식산정사를 건립하고 강학한다. 교유한 사람은 유성룡·정경세·이준·전식 등의 후손들이고, 도학을 강론하여 풍속을 교화하려고 하였다. 또 상주로 찾아온 신유한과 이형상 등과 시문을 창수하고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하였다. 문경으로 이주하면서 홍여하·이구 등의 후손 및 신필정·권상일·오상원 등과 교유하였고, 근암서원을 증축하여 도학을 강론하였다. 상주 북곽의 승곡으로 이주하여 조정과 노수신의 후예들과 교유하였고, 조친경과 노계원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다.

둘째 안동권 갈암 이현일 계열 학인과 교유에서 조부 이관징과 이현일의 관계를 통해 재경시절부터 중유하였다. 식산이 영남으로 이거했을 때 안동 지역은 김성일에 연원을 둔 갈암계 학인들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현일이 1703년 귀양지에서 안동으로 돌아오자 식산은 자득하여 수립한 「天道有敬說」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인가를 받고, 성리설에 대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식산은 1708년 『道東編』을 저술하여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피력하였고, 이재·권두경·김성탁 등과 교유하면서 이이의 이기설을 두고 학문적으로 대립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1732년 안동향교에서 『退陶先生言行通錄』 간행할 때 총괄 책임자였던 계부 이협과 함께 교정 작업에 참여하여 김성탁과 교유하게 된다.

셋째 강우지역 남명 조식 계열 학인과 교유에서 강좌지역 겸허한 퇴계학과 강우지역 실천적인 남명학의 학문적 성향이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식산은 영남지역 학풍의 장단을 파악하여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입장보다 절충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교유하였다. 戊申之亂이 일어났을 때 식산은 檄文을 지어 창의를 돕고 아들을 창의에 가담하게 한 행동에서, 敬의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성향을 볼 수 있다. 식산은 1721년부터 1725년까지 덕천서원 원장을 지내면서 김성운·하세응·신명구 등과 교유하였다. 『식산집』에는 강우지역 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강우지역

선현을 현창하는 많은 글이 실려 있다.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유관계의 일단을 검토한 결과, 35년간 영남에서 살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교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식산의 교유양상을 영남남인에 제한하여 검토했기 때문에 근기남인과의 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했다. 허목 계열의 학문을 계승한 근기남인계 학자들과 당색이 다른 소론계 학자들과 교유양상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식산 이만부, 교유양상, 근기남인, 영남남인, 『도동편』, 명남계 학인

1. 序論

息山 李萬敷는 1664년 12월 22일(陰)¹⁾ 한양 성서의 芹谷에서 태어나 1697년 영남으로 은거한 뒤 1732년 12월 18일 69세로 尙州府 北郭의 時習齋에서 卒하였다.²⁾ 息山家は 壬·丙兩亂을 통해 번성한 延安李氏 三陟公派로 17~8세기 근기 남인계의 대표적 명문가 가운데 하나이다.³⁾ 식산은

-
- 1) 李萬敷는 음력 1664년 12월 22일에 출생하여 1732년 12월 18일에 졸하였는데, 출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665년 2월 6일이 된다. 그러므로 당대부터 그의 출생 년을 甲辰(1664)과 乙巳(1665)로 혼용하여 쓰고 있다. 본고에는 1664년을 출생 기준으로 한다.
- 2) 李萬敷, 『息山集附錄上』, 『家狀(盧啓元 撰)』, 장5b면, “壬子(1732)十二月, 感疾既病, 命遷于正寢時習齋, 子弟難之, 先生責以姑息, 遂學扶而遷” 이 글은 『韓國文集叢刊』 179책 322쪽 b면에 나온다. 본고에는 『息山全書』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息山集』의 목판본을 기준으로 출전을 표기한다. 다른 학자들의 출전은 『韓國文集叢刊』의 면수를 표기한다.
- 3) 三陟公 李抹은 二男을 두었는데 장남 李麟壽은 早歿하고, 차남은 李慶宗이다. 이경종은 李澗(1534~1584, 字는 彦霖, 號는 盆峯)를 낳았고, 이주는 李光庭과 李昌庭을 낳았다. 장남 李光庭은 三男을 두었는데 李紘·李紉·李綸이고, 차남 李昌庭은 六男을 두었는데 李禕·李軫·李統·李禕·李濟·李禕이다. 李昌庭과 李禕은 李萬

가학으로 程朱學과 科文을 익히고, 許穆(1595~1682)으로부터 古學趣向과 博學精神을 배우면서 유년기를 보냈다. 1689년 己巳換局으로 문벌이 되었지만 1694년 甲戌換局으로 서인들이 국정을 장악하면서 남인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실세하고, 1695년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조부 李觀徵(1618~1695)마저卒하면서 家運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갑술환국의 여파로 1697년 늦가을 고향인 한양 西湖에서 鄒魯之鄉으로 불리는 상주 외답 魯谷의 息山 아래로 卜居하였다.⁴⁾ 1698년 봄 온가족을 이끌고 상주로 이주했던 부친 마저 9월 23일 우거하던 곳에서 急逝하였다. 食산은 1699년 交河 登元里로 부친의 묘를 遷葬하고 한양에서 삼년상을 마친다. 1700년 노곡의 天雲齋에 다시 돌아오면서 영남남인과 직접적으로 交遊關係를 맺게 된다.

본고의 목적은 食산가의 가학과 당색을 고찰하여 食산의 學問形成 과정을 살펴보고, 영남남인과 交遊關係를 추적하여 食산의 交遊樣相을 고찰하는 것이다. 상주에 은거하며 交遊한 인물들을 상주권의 西厓系 학인과 안동권의 葛庵系 학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학문적 葛藤도 고찰한다. 그리고 1721년 金陵의 蟾峰⁵⁾에 이거한 뒤 5년간 曹植과 崔永慶을 배향하는 진주의 首書院인 德川書院 원장을 역임하면서 친분을 쌓은 강우지역 南冥系 학인과의 交遊양상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食산이 1697년부터 1732년까지 영남지역에 살면서 영남지역 인물들과 交遊하며 학문적으로 갈등한 국면과 程朱學과 實心思想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저술에 주목하였다.⁶⁾ 또 食산이 남명학과 학인에게

數의 고조와 증조가 된다.

4) 『息山別集』 卷1, 「升室記」, 장46b면, “余始以丁丑(1697)歲, 卜魯谷.”

5) 『息山別集』 卷1, 「遷寓對」, 장43a면, “前年(1721)少遷金陵蟾峰, 人或疑之, 作此文以解之, 非直爲一時發, 蓋人生世間, 其行止難必, 有如此者也. 今年(1722)又爲疾病事故所迫, 還尋舊寓, 商山與金陵, 俱非我故園.” 蟾峰은 金陵郡 甘泉面 耆洞의 別稱이다.

6) 權泰乙(1996), 19~31면에 가계와 생애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209~215면에 「息山先生年譜」를 작성하여 생애와 주요 작품을 소개하였다.

끼친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논하였다.⁷⁾ 그러나 상주의 노곡, 聞慶縣의 靑華洞, 금릉의 蟾峰, 상주의 升谷⁸⁾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강학하고 교유한 인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식산의 학문형성과 교유양상은 생애 전반기 근기지역에서 활동한 시기와 36년간 영남에서 은거한 시기를 유기적으로 고찰해야 전체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息山集』에 풍부하게 남아있는 영남 남인과 교유양상을 먼저 고찰하고, 자료가 부족한 근기남인과 관계는 간단하게 살펴본다.

참고한 문헌은 『식산집』 卷3~10에 편지 292통과 『息山續集』 卷1~5에 편지 135통⁹⁾ 그리고 『息山全書』 3책은 중심 자료이고,¹⁰⁾ 서에게·갈암계·남명계 학인들의 문집은 방계 자료로 활용한다.

2. 李萬敷의 家系와 南人系 學脈

식산이 영남으로 은거하게 된 선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연원이 깊다. 처음으로 영남에 이거한 사람은 靈一禪師¹¹⁾와 고조부 李昌庭(1573~162

7) 權泰乙(2000a; 2000b), 참조.
 8) 『息山別集』 卷1, 升室記, 장46a~47a면, “以庚寅(1710)歲, 入華陰, 壬辰(1712)歲, 復還魯谷, 以己亥(1719)歲, 移城北改築, 辛丑(1721)歲, 遷蟾峰, 壬寅(1722)歲, 復還舊寓, 作升室, 故三處所記述.”
 9) 權泰乙(1988), 23~44면 참조. 23면 주석1)에 편지 409통이라고 했다. 본고에서는 별지를 새롭게 계산하니 모두 427통으로 나왔다.
 10) 『息山集』은 증손 李敬儒(1750~1821)가 家藏 稿本을 바탕으로 鄭宗魯와 柳尋春(1763~1834)의 교정을 받아 1813년 상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분량은 原集 22권, 別集 4권, 續集 10권, 世系·附錄 2권, 합계 20책 38권으로 1637板 3274면이다. 『韓國文集叢刊』 178~179책(민족문화추진회, 1996)으로 간행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權泰乙(1993), 5~20면에 『息山集』과 식산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저서 10여 종과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11) 靈一禪師는 李慶宗의 庶子 李添의 아들이다. 즉 李澍의 庶姪이며 李昌庭의 庶從叔

5)¹²⁾이다. 宣祖(1552~1608)와 小北 세력에 의해 왕위에 위협을 받던 광해군은 1614년 이복동생 永昌大君(1601~1614)을 강화도에서 살해하고, 1618년 어머니 仁穆大妃(1584~1632)를 서궁에 유폐시킨다. 이른바 殺弟廢母로 일컬어지는 반인륜적 정치투쟁 사건이다. 이창정은 평소에 『四書』와 『朱子書節要』 등을 즐겨 읽었다.¹³⁾ 또 鄭仁弘系 인사들이 李彦迪과 李滉의 文廟 배향을 毀撤하자는 상소가 있었을 때, 그는 성균관 유생을 모아 변무소를 지어 변론하였다.¹⁴⁾ 그 뒤 정국이 더욱 혼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문경현 靑華洞에 은거하고, 華陰無求翁이라 자호하였다. 영일선사는 그보다 조금 일찍 청화동에서 結社하여 雙龍菴에 거처하면서, 이창정의 은거지를 마련해 주고 조카들에게 출처를 조언하였다.¹⁵⁾

이다. 『息山集』 卷20, 「靈一禪師傳」, 장13a~13b면, “禪師, 俗姓延安李氏, 於我高祖觀察公(昌庭), 爲庶屬也. (….) 當壬辰島夷入寇, 四溟大師惟政, 在金剛, 聞變唱其徒, 擧義旅”

- 12) 『息山續集』 卷8, 高祖考觀察使贈吏曹判書府君(昌庭)遺事」, 장57a면, “丁巳(1617), 賀至朝天, 公以价行, 枵橐而歸, 到遼東, 甞言我東有貳意甚噪. 蓋灣尹李克信, 失鎮江遊擊心被脩郟, 公代正使立草文辨其誣, 辭理甚明, 衙門一見動色, 羣疑冰釋. 先是, 殺永昌大君于江都, 廢母后之議繼起, 及公還朝, 則大妃已出處西宮矣. 公痛之以爲出疆時既辭東朝, 還而豈可無復命, 遂拜西宮, 此爲世大禁, 而公獨行之. 廢主心惡, 而亦不得罪焉. 然自是益沉屈, 參佐分戶曹者數年, 公嘗愛聞慶山水, 卜華山之陰, 自號曰華陰無求翁.”
- 13) 趙綱, 『龍洲遺稿』 卷20(『文叢』 90쪽), 「監司李公(昌庭)神道碑銘并序」, 369쪽 a면, “公一生喜讀書, 於學庸語孟·朱子書, 用工深. 雖劬煩時, 暇必伊吾不已.”; 『息山續集』 卷8, 「高祖考觀察使贈吏曹判書府君(昌庭)遺事」, 장59b~60a면, “公平居, 喜讀書於四傳及朱子書, 用工尤深.”
- 14) 『息山續集』 卷8, 장55a~b면, 「高祖考觀察使贈吏曹判書府君(昌庭)遺事」, “癸卯, 成進士, 會湖南人受人指, 疏毀退溪先生, 館學諸儒咸萃, 將辨其誣, 以爲非李某不可.”
- 15) 『息山集』 卷20, 「靈一禪師傳」, 장14a~14b면, “告觀察公曰, 凡仕于朝者, 不合則去, 古之義也. 雖然, 去而無所歸, 則無以安身立命. 貧道於聞喜, 賞一山水區, 公何不卜其居乎? 於是, 公帶師而行, 至聞喜, 卜加恩西靑華之下, 成一庄焉. 師又占靑華東小洞結社, 招門徒數人居之, 今所稱雙龍菴是也. 光海時, 觀察公不樂於朝, 退居于是, 自號曰, 華陰無求翁, 杖屨所及, 師輒陪焉. 有若白蓮故事者, 數年. 我曾王考贊成公, 隱德不仕. 丙子避北亂, 復歸于是, 時師猶在, 年八十餘, 彪眉過眼, 儀容甚古, 一見知其爲道骨也. 預言吉凶休咎, 多奇中, 戊子(1648), 贊成公入京師, 作書曰, 今年家運不吉, 須慎焉. 果以是秋, 贊成公與兩弟, 相繼捐館, 不知其所推者何術也.”

중조부 李禱(1597~1648)은 광해군의 난정을 목격하고 과거응시를 폐하고 학문에 전념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바뀌자 遺逸로 천거되어 大君師傅에 임명되었으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直諫하였다. 정묘와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다시 문경현으로 은거하여 자손들을 훈육하며 지내다가 1648년 한양의 사저에서 일생을 마쳤다.¹⁶⁾ 이심은 생전에 조경과 허목 등 근기남인의 영수로부터 貞士 또는 淸節之士로 칭송받았고,¹⁷⁾ 사후에 문경현의 瀟陽書院에 배향되었다.¹⁸⁾

조부 이관징은 1618년 외가인 경북 義城縣에서 태어나 문경현에서 독서하며 유년기를 보냈고, 1639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와 과거 공부를 하였다. 1652년 靖陵參奉에 천거되고, 1653년 11월 별시 문과에 합격하였다. 1664년 다시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1672년 승지를 역임한 후 1673년 3월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어 영남인사를 조정에 천거하였다.

숙종이 즉위하여 남인들이 집권하면서, 1675년 9월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經筵官이 되어 숙종의 신임을 얻었고, 1776~1777년 『顯宗實錄』 편찬에

-
- 16) 『息山續集』 卷7, 「曾祖考贈左贊成府君墓誌」, 장23a~24b면, “公諱禱, 字子瞻, 癸丑(1613), 娶李夫人. 四十六年戊午(1618), 卽光海十年, 而仁穆王后別處西宮, 公痛彝倫斃絕, 遂不赴學. (….) 及經丙丁(1636, 1627)之亂, 尤不樂於世, 挈家踰大嶺, 或居華陰舊庄, 或居上洛之松峙, 耕稼自給, 自號曰稼隱, 亦曰治世閒民. 己卯(1639), 拜副率, 皆不就, 再爲大君師傅, 嘗一入京, 與大君見, 導之以禮, 有少過輒規, 不少有私昵意, 大君甚憚之; 戊子(1648), 因事歸洛, 邁毒癘考終, 得年五十有二.”
- 17) 許穆, 『記言別集』 卷21(『文叢』 99책), 「贈吏曹參判李公(禱)墓碣銘」, 234쪽 c~235쪽 c면, “公諱禱, 字子瞻, 姓李氏, 系出延安. 觀察使六男, 公最長, 母星山李氏, 處士應明之女也. 公以名家子, 性恬靜好書, 華戶蒨席, 飯糗茹草, 不以利達爲心, 既以才學發聞. 自廢主之世, 見世道大亂, 恥之, 寧潔身自守. 後逢世故不樂, 因廢舉, 挈家至上洛之松峙, 耕稼以自給, 自號稼隱. (….) 其銘曰, 自古淸節之士, 不屈志特立, 果於忘世者皆是.”; 『息山集附錄(上)』, 장22b면, 「墓誌[李敬儒 撰]」, “曾祖諱禱, 號稼隱, 以遺逸爲大君師傅, 贈貳相. 趙龍洲許以貞士, 眉老先生稱之以淸士.”
- 18) 李栽, 『密菴集』 卷15(『文叢』 173책), 「瀟陽里社合享祝文」, 295쪽 b면, “猗歟先生, 篤生名閥, 雅性高潔, 才學卓殊, 念絕趨榮, 惟耽墳籍, 脫略貴勢, 安貧固窮, 嚴不傷和, 淸不絕物.”; 『密菴集瓿餘』 冊一(『文叢』 173책), 「瀟陽里社奉安文 丁未(1727)秋」, 「常享祝文」, 591쪽 a면, “潔身高蹈, 扶植倫常, 壯節千秋, 頑廉懦立. 右稼隱.”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완성하고 상을 받았다. 1680년 冬至正使¹⁹⁾로 청나라 연경에 다녀와 국제적인 정세를 살폈다. 1689년 예조판서를 거쳐 吏曹判書兼 元子輔養官을 역임하고, 1690년 世子右賓客이 되고 관중추부사로 致仕하였다. 1693년 4월 76세 때 奉朝賀의 영예를 입었다.

그는 허목에게 배운 관료문인으로 글씨에 뛰어나 비문의 글씨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아들 李淑(1658~1693)과 李沃도 글씨에 능하였다. 서인과 남인이 대치하던 숙종의 환국시기를 줄곧 중앙정국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淸南系의 중추적인 인물이다.

식산의 부친 李沃(1641~1698)은 처종조부 李敏求와 蔡裕後 그리고 趙綱 등에게 문장을 배워 칭찬을 받았고,²⁰⁾ 1660년 20세의 최연소로 庚子增廣試에 급제하여 문명을 드러냈다. 또 洪宇遠(1605~1687)과 허목에게 예학과 육경고문을 배웠고, 柳成龍(1542~1607)의 손자 柳元之(1598~1678)에게 易學을 배우면서,²¹⁾ 西厓系 학인들과 교류하였다. 유성룡의 증손녀인 柳千之(1616~1689)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맞이하여 영남남인과 혼반관계를 맺어 식산이 영남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신권위주의 예론을 펴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탄핵하고, 왕권위주의 예론을 펴는 윤선도·허목·홍우원 등의 예설을 지지하면서 1~2차 禮訟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勳戚세력 金錫胄와 결탁한 濁南系²²⁾의 柳命天

19) 冬至正使 : 李觀徵은 1679년 冬至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갔다. 『芹谷致政公年譜』 卷1, 장19b면, “(1679)辛酉 十一月, 以冬至正使(李觀徵)赴燕. 在途疏遞付護軍. 副使爲李端錫, 書狀官爲申潁.”라고 했고, 『肅宗實錄』 9卷, 1680년 3월 10일(己亥)에, “冬至使李觀徵·李端錫等, 自燕廻. 上引見, 問彼中形勢. 觀徵曰: ‘吳三桂必不得滅北京, 淸人亦不得滅三桂, 所可憂者, 蒙古也.’”라는 기사가 나온다.

20) 李沃, 『博泉文』 卷5(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書戊寅正晦詩帖序」, 장6b면, “蓋以游(李玄錫)之於海老(李敏求), 耆(蔡彭胤)之於湖翁(蔡裕後), 各爲堂孫, 以余不佞亦嘗及海老之門, 而習之於湖翁, 則非別人故也.”; 『博泉詩』 卷1, 「博泉集序 [權重經 撰], 장11b면, “早游柱峰(趙綱)·東州(李敏求)之門, 大被賞識.”

21) 『息山集』 卷22, 先府君家狀, 장25a면, “府君嘗曰, 我見東州, 知時文之不足事. 問易於柳拙齋元之, 從眉叟講論.”

22) 濁南系列은 숙종 때 대서인 정책에 온건한 입장을 취한 인사들로, 許積·許堅·閔熙·

을 배척하는 등 청남계열의 중추적 인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1674년 甲寅 禮訟 이후 외직에 나갔다가 1678년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濁南系의 영수 許積(1610~1680)에게 배척을 받아 북쪽 변방인 宣川·定州·嘉山·安寧·會寧·甲山과 1686년 남쪽 변방인 谷城 등지로 유배지 생활을 하였다.

다음은 식산가의 혼반관계를 검토해보자. 이창정의 부인 星山李氏는 이황의 제자 李應明(1556~1582)의 딸²³⁾이다. 이삼의 부인 永川李氏는 義城郡 沙村에 살던 李光俊의 손녀이고, 李民寔(1573~1649)²⁴⁾의 딸²⁵⁾이며 李民成²⁶⁾의 질녀이다. 이관정의 부인 朔寧崔氏²⁷⁾는 영의정 崔恒의 후예로, 監司를 역임한 崔東立(1557~1611)의 손녀이며, 小北七學士의 일원으로 都事를 지낸 崔皞(1583~1626)의 딸이다. 이옥의 부인은 李暉光(1563~1628)·李聖求·李同揆(1623~1677) 등은 증조·조부·부가 된다. 식산의 初娶 부

閔黯·閔宗道·柳命天·柳命堅·俞夏益·吳挺昌·吳始壽·吳始福·李瑞雨 등이다.

- 23) 李應明의 字는 良遇, 호는 道淵, 本貫은 碧珍인데 尙州 道淵에 살았다. 曾祖는 李瑾, 祖는 李師益, 父는 李安仁이다. 李應明은 15세에 李滉 문하에 증유하였고, 鄭述와 道義之交를 맺었으며, 사후에 李昌庭이 그의 墓碣을 지었다. 『息山續集』 卷8, 「高祖考察使贈吏曹判書府君遺事」, 장60a, “夫人星山李氏, 考應明, 受業溪門, 有處士之行, 早卒, 四世祖鐵均, 官至大司成. 夫人梱儀, 惟公率之, 而勤儉是飭, 不以貧窶, 貽君子憂焉.”
- 24) 李民寔의 자는 而壯, 호는 紫巖, 본관은 永川, 시호는 忠簡이다. 부는 觀察使 李光俊이고, 金誠一의 문인이다. 저서에 『紫巖集』 7권 2책이 『韓國文集叢刊』 82책에 실려 있고, 1635년 공자의 제자 顏回的 자료를 뽑아 상세하게 주석한 『博約集說大全』(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에 소장) 1책이 전한다.
- 25) 『記言別集』 卷21(『文叢』 99책), 「贈吏曹參判李公墓碣銘」, 234쪽 c면, “公諱禕, 字子瞻, 姓李氏, 系出延安. 公娶永川李氏, 刑曹參判民寔之女, 有賢婦人之德, 閨門之內, 無一違君子之教, 而養子孫, 亦未嘗以慈愛而壞禮式也.”
- 26) 李民成(1570~1629)의 자는 寬甫, 호는 敬亭, 본관은 永川, 李光俊의 아들이고, 金誠一과 張顯光의 문인이다. 『敬亭集』 18권 10책이 『韓國文集叢刊』 76책에 실려 있다. 식산은 曾祖考贈左贊成府君墓誌(『息山續集』 卷7, 장24b면)에서, “敬亭李公, 李夫人之伯父, 而以文學稱宗匠於嶺南.”이라고 하여 이민성의 뛰어난 문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7) 朔寧崔氏 : 李觀徵은 朔寧崔氏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李沃·李淳·李淑·李浹·李澗·李閔昌道 등이고,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였다.

인 의성김씨는 金珪(1606~1681)의 손녀이고 金爾楷(1645~1672)의 딸이고, 再娶 부인 풍산유씨는 영남남인의 대표적 명문가 후예이다.

식산의 학문형성 과정은 이관징과 이육이 교유한 인물들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숙종시대 근기 남인계 식산가의 문화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선왕 숙종 15년 기사년에 耆老所의 舊臣들을 등용하였다. 나의 조부 致政府君 이관징은 영의정 權大運, 좌의정 睦來善, 尙書 吳挺緯 등과 더불어 삼공과 중신의 자리에 있을 때 養老乞言²⁸⁾을 하였다. 四老들이 일찍이 종남산 아래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의 先府君은 또 시랑 睦林—(1646~1716), 權珪(1648~1714), 대사간 吳始萬(1647~1700) 및 湖南伯 權重經(1658~1728) 등과 함께 太常에서 베풀어 준 잔치를 받들어 모시니 典樂에서 軒懸을 연주하였다. 세상에 ‘終南四老會’라고 불렀고 국가의 융성함을 아름답게 드러내어 노래하고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었다. 네 집안의 주손들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며 소장하고 있다.²⁹⁾

인용문에 언급된 연안이씨 · 안동권씨 · 동북오씨 · 사천목씨 등은 전주이씨 · 여주이씨 · 여흥민씨 · 진주유씨 집안과 함께 근기남인의 대표적인 명문가이다.³⁰⁾ 권대운(1612~1699)의 아들과 손자는 이육과 그 아들과 세교가 있었고, 권대운의 從弟 權大載는 이관징의 장손 李萬秀의 장인이다. 목래선(1617~1704)은 이관징과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다. 오정위

28) ‘養老乞言’이란 노신 가운데 어진 이를 봉양하고, 인하여 행할 만한善言을 구하는 제도이다.

29) 『息山集』卷18, 「敬書庶從弟所藏諸老手簡帖」, 장26a~b면, “先王肅宗十有五年己巳, 進用耆舊臣. 我王考致政府君, 與首相權公, 左相睦公, 尙書吳公, 并處公孤之位, 同享乞言之養. 四老嘗謙于終南之下, 我先府君亦與侍郎睦公, 權公, 大諫吳公暨今前任湖南伯權公, 侍獻以太常之饌, 奏以典樂之懸. 世共稱四老會, 有以彰國家之盛, 而既以圖畫歌詠, 作之屏障, 爲四家宗冑所藏之寶焉.”

30) 李樹健(1990), 834면에 인용한 尹鍊(尹鏞의 庶兄-인용자 주)의 「辛未同朝錄」(1691년) 참조

(1616~1692)의 두 딸은 이관징의 아들 이협과 이옥의 아들 李萬維(1674~1736)에게 출가하였다. 이옥이 지은 「四老宴會屏序」³¹⁾에 의하면, 권규와 권중경은 1689년 9월 중남산 아래에서 권대운(79세)·목래선(74세)·오정위(75세)·이관징(73세) 등을 모시고 연회를 베풀었고, 그것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병풍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이옥은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1697년 늦가을에 막내 동생 李浹(1663~1737)³²⁾과 둘째 아들 이만부를 먼저 영남의 안동과 상주로 이주시켰다. 이어서 1698년 봄 상주로 내려와 강학하다가 그 해 9월 23일에 생을 마쳤다.³³⁾

식산 당대까지 집안의 사마시 합격자와 문과 급제자를 분석해보면, 10촌 이내에 대과급제자는 19명(이중 13명이 8촌 이내), 소과급제자는 47명(이중 28명이 8촌 이내)이다. 관계에 진출한 56명(이중 33명이 8촌 이내) 가운데 8촌 이내에서 품계가 3품 이상에 오른 사람도 14명에 달하였다.³⁴⁾

그러나 식산은 簪纓世族의 文翰家에서 성장하였지만 당쟁에 부침하는 조부와 부친의 환로 생활을 체험한 후 1688년 25세 때에 과거를 폐하고,³⁵⁾

31) 李沃, 『博泉文』 卷5, 「四老宴會屏序」, 장2a~장4a, 참조

32) 李浹은 자가 悅卿, 호가 東厓이고, 1689년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許穆의 제자였으나 안동으로 이주한 이후 李玄逸, 李惟樟, 權斗經, 李栽, 趙德隣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息山集附錄(下)』, 「祭文季父東厓子」, 장35b~36b면, “君之欲啐, 我纔孩提, 惟我伯嫂, 左提右挈, 共乳而育之, 視嫂猶母, 視君猶弟; 一日諸長老, 嘗問所期於君我, 奮發事業, 立揚當世, 余之撰也; 願學程朱, 彰明道學, 君之對也.” 참조 또 이협은 1731년 「退陶先生言行通錄」을 간행할 때 안동향교에서 안동과 상주 지역의 학자들과 토론하며 간행하는 일의 총책임자로 참여하고, 1732년 「言行通錄跋」을 지었다.

33) 『息山續集』 卷6, 「先考嘉善大夫禮曹參判府君(沃)墓誌」, 장21a~b면, “戊寅(1698), 捲踰大嶺, 止上洛之治, 洛爲李氏并鄉也. 九月二十三日, 考終于寓舍, 得年五十八.”

34) 이승화 엮음, 『연안이씨의 사마시와 문과시』, 뿌리문화사, 2001; 『延安李氏三陟公派譜』 上·中·下, 延安李氏三陟公派譜所; 權泰乙(1996), 21면 참조

35) 『息山集』 卷3, 「上庭下稟廢學書」, 장1b~2a면, “夫選舉之法, 雖非古制, 然觀前世試士, 猶不至大悖謬矣. 自近年以來, 世道日益難, 禮節日益紊, 綱紀日益頹, 人不樂道, 利欲紛挐. 士子當試, 則爭先趨奔, 蹴踏競逐, 不顧廉恥, 不計死生, 顛仆者有之, 墮

舉子業으로 익히던 時文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道學에 專心하게 된다.³⁶⁾ 주로 중유한 인물은 허목·홍우원·李鳳徵 등의 스승과曹夏疇³⁷⁾·李潛·李澈³⁸⁾·李灑³⁹⁾·尹斗緒 등의 친구였다.

식산은 상주로 이거한 후 17세기 영남학파를 네 가지 계보로 파악하였다.

지금 강우 上游 [尙州] 의 논의는 서애 柳成龍을 받들어 우복 鄭經世에게 미치고, 星州 이하 지역의 논의는 한강 鄭述를 받들어 여헌 張顯光에게 미치고 있다. 永嘉 [安東] 일대는 서애와 학봉 金誠一이 함께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예안 사람들은 월천 趙穆을 가장 높이므로 도산서원에 배식된 사람은 오직 월천 한 사람뿐이다.⁴⁰⁾

식산은 당시 영남학파를 안동·상주의 유성룡 계열, 성주 이하의 정구계열, 안동의 김성일 계열, 그리고 예안의 조목 계열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

折者有之, 隕命者有之, 且勢重者得之, 而有才者失焉, 財多者中之, 而能文者屈焉. 士生于今, 必如此而立名, 則其亦難矣.”

- 36) 『息山集』 卷12, 「露陰山房錄」, 장25a면, “(或問曰: 不赴學可乎? (息山)曰: 廢學者, 欲專心學問也.”
- 37) 『息山集』 卷1, 「曹君叙夏疇, 李仲淵, 來郵亭後園, 次座中韻」, 장4a면, “客到楊園裏, 馬歸青草中, 宿霏山刷碧, 深葉日鍼紅, 野酌斟官酒, 新詩和牧童, 此中文以會, 吾道卽非窮.”
- 38) 『息山集』 卷1, 「與李澄叔淑, 號玉洞, 金原仲, 會話江舍」, 장2b면, “澄漢堂前流, 俯瞰孤樹林, 嘉朋惠然顧, 俱有一片心, 展書候清風, 炎蒸不相侵.”
- 39) 李灑, 『星湖全集』 卷51(『文叢』 199책), 「送息山李處士序」, 436쪽 c면, “灑昔在童丱, 納拜於李先生. 中間落落晨星餘二十年, 尙記使得將命, 不果於輕絕, 故置諸懷中, 終不敢忘也.”; 『星湖全集』 卷51(『文叢』 199책), 「送洪古阜之任序」, 441쪽 d면, “在昔息山李先生之未棄後學也, 灑得納拜於西江之旅館, 先生爲余道嶺南多才賢, 其受業者往往發揮經旨, 近於可用.”; 『星湖全集』 卷17(『文叢』 198책), 「答洪紱一」, 362쪽 c면, “昔息山先生之未南爲也, 家兄有麗澤之歡, 灑當時穉蒙顯劣, 不得負牆受命矣.”
- 40) 『息山集』 卷18, 「退陶淵源筆帖跋」, 장16a면, “今江右上游之論, 主西厓而及于愚伏. 星山以下之論, 主寒岡而及于旅軒. 永嘉一帶, 并稱厓鶴, 而宣城人最尊月川, 故陶山配食, 惟月川一人而已.”

음을 볼 수 있다. 유성룡·김성일·조목은 영남좌도에 이황의 제자이고, 영남우도에 정구는 오건과 조식에게 학문을 배우고 뒤에 이황의 제자가 되었다.⁴¹⁾

정구의 문인 가운데 장현광은 허목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경과 허목 등은 영남 좌·우도의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대표적인 근기남인이다.⁴²⁾ 정구의 학문을 계승한 허목은 청남계의 영수로 식산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식산의 예학과 출처, 문장과 예술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⁴³⁾ 식산은 이민구·홍우원·조경 등의 문학에 영향을 받고, 조부 및 부친과 함께 허목의 門徒가 되어,⁴⁴⁾ 六經古文과 諸子百家 중심의 박학⁴⁵⁾에 경도되었다. 그의 방대한 저술⁴⁶⁾은 그러한 박학정신을 반영한 것

- 41) 『息山集』 卷3, 「答從弟和國萬寧」, 장8a면, “寒岡, 少學於德溪, 長而師事南冥, 卒業於陶門.”
- 42) 許捲洙, 「龍洲 趙綱과 嶺南 南人과의 교류에 관한 연구」,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1996), 41~90면 참조.
- 43) 조경과 허목은 息山家の 비지문을 撰述하거나 글씨를 써준 것이 여러 편 있다. 식산의 종조부 李鳳徵은 허목의 제자인데, 전라감사로 있을 때 『記言』을 나주에서 간행하였다. 이봉징은 식산과 편지로 기인 교정을 부탁하고, 또 미수의 학통을 논하고 있다. 식산의 문장은 鹿峰 許穆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았다.(李敬儒의 息山集跋 참조); 『息山別集』 卷1, 「首尾吟」, 장15a면, “寬夫非是愛吟詩, 詩是臨池揮灑時, 蝸蚪筆頭爭屈曲, 蛟龍紙面欲離披, 鼎文殘缺難尋得, 眉老高奇未躡追, 乘輿豈須要字好, 寬夫非是愛吟詩. 寫篆”에서 허목의 전서를 평소에 연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산이 남긴 서예 작품 가운데 전서는 허목의 古篆奇字와 흡사하다. 경상북도 문경시 식산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息山堂篆法』·『兩庭手墨』·『古文』 등의 서첩을 참조.
- 44) 『南譜』·『萬姓譜』·『韓國系行譜』(天) 등의 李萬敷 항목 아래에 ‘眉門人·眉叟門·眉叟門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河弘道, 『謙齋別集』, 『師友門徒錄』, 97쪽, 16쪽 d면, 「許眉叟」, “李息山萬敷, 眉門弟子也.”; 『息山集』 卷18, 「書四公簡帖」, 장25b면, “余後生齒莽, 猶及先輩如眉叟(許穆)·南坡(洪宇遠)諸公之門, 然童駿無所知識, 惟挹其儀容而敬慕之也.”; 姜周鎭(1998), 36면에, “李觀徵·李沃·李萬敷 등은 삼대에 걸쳐 모두 眉門에 출입했다.”고 하였다.
- 45) 李萬敷, 李萬維 共編, 『芹谷致政公年譜附錄(下)』, 76~77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祭文[李湜 撰], “堂姪萬秀以下, 或肆力古文, 或潛心經學, 或專治博士業, 俱彬彬可觀.”이라는 평이 있는데, 古文은 李萬秀, 經學은 李萬敷, 博士業은 李萬維와 李萬祉 등이 추구한 것이다. 육경고문을 중심으로 박학과 실용의 학문을 추구한 것은 근기남인의 학문적 특징인데, 李睟光의 『芝峯類說』,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許穆의

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식산은 17세기 근기남인계의 학자들에게 배우고
중유하였고, 그들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여 저술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697년 영남으로 이거한 후 영남남인들과의 교유관계 및 양상을 살
펴보겠다.

3. 尙州圈 西厓系 學人과 交遊

1) 柳成龍 및 尙山三老 後裔와 交遊

식산가 영남지역과 선대부터 연고지가 있었고, 상주지역은 서에게의 학
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다. 갑술환국 이후 정권은 서인과 소론에게 넘어갔
고, 남인은 영조가 탕평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정치적으로 암
흑기에 접어들었다. 식산은 1690년 8월 23일 27세에 전부인 의성김씨의喪
을 당하고, 그 해 겨울 영남지역으로 유람하여 선현들이 배향된 서원에 拜
謁하였다. 또 1691년 풍산유씨와 재혼한 이후 영남지역으로 유람하며 은거
지를 물색하던 중 1697년 늦가을 둘째 부인의 고향인 상주 노곡에 은거할

『記言』, 柳馨遠의 『礪溪隨錄』, 李萬敷의 『地行錄』, 李澈의 『雜著』, 李灑의 『星湖僊
說』, 李重煥의 『擇里志』, 安鼎福의 『萬物類聚』·『雜同散異』 등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 46) 『息山全書』에 실린 저서와 기타 저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文學과 藝術
분야에 『息山集』·『陋巷錄』 1권·『地行錄』 3권·『古篆八分體』·『陋巷圖』 1책·『律呂推
步』 1권; 經典과 理氣心性學 분야에 『四書講目』 9권·『易統』 8권·『易大象便覽』 1권·
『讀書日記』 1권·『息山志書』 15권·『雜著』·『魯餘論』 1권·『道東編』 18권; 禮學과 儀禮
분야에 『禮記詳節』 30권·『四禮綜要』 4권; 經世學과 時務策 분야에 『魯谷洞約』·『萬
東祠議』 1권·『閨訓』 1권·『雜著』; 國學과 雜學 분야에 『太學成典』 13권·『在陳錄』 1
권·『雜錄』 5책·『讀書隨錄』 1권·『讀書法』 1권·『地行錄』 3권 등이다. 李樹健, 『嶺南
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5), 37~38면을 기초로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곳을 정하고 이거한다.

상주 柴里⁴⁷⁾에 살던 장인 유천지는 유성룡의 손자이고 柳衿(1582~1635)의 아들이며,⁴⁸⁾ 유천지의 從兄인 유원지는 이옥에게 易學을 가르쳤다.⁴⁹⁾ 이 두 사람은 조정에 출사하여 이옥과 함께 남인계에 속했던 영남남인이 다. 이후 두 집안은 사우와 혼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세의를 다졌다. 식산은 유성룡의 5대 주손 柳聖和(1668~1748)⁵⁰⁾와 친구로 교제하고 그의 딸을 식산의 며느리로 맞이한다.⁵¹⁾ 또 柳經河(1663~1713)로부터 유성룡의 유품인 책상을 전수받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다.

서애 선생의 竹汀는 수암 선생에게 전하였고 또 장인 선생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은 풍산유씨 집안의 대대로 전하는 오래된 유품이다. 내가 그 가문의 사위가 되었더니, 친구 柳汝常씨가 내가 古書를 읽으며 古人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

- 47) 『息山集』 卷22, 「通訓大夫司憲府掌令豐山柳公行狀」, 장27a면, “公諱千之, 字子強, 姓柳氏, 世爲豐山人. (….) 季諱衿, 字季華, 號修巖, 少擢進士壯元, 不復應舉, 廢朝政亂, 自河回世居, 移卜商山之柴里.”
- 48) 『息山集』 卷21, 「亡室恭人豐山柳氏墓誌」, 장7a면, “延城後人 李萬敷 繼室柳氏, 籍豐山. 文忠公諱成龍, 字而見, 文忠公季胤諱衿, 以遺逸, 官至司憲府持平 贈吏曹參判, 號爲修巖先生, 於恭人爲祖考, 考諱千之, 亦以遺逸, 官至司憲府掌令, 掌令公娶士人河晉瀛女, 生二男三女, 恭人序最季.”; 『息山集附錄(上)』, 「行狀[李瀛 撰]」, 장16b면, “後娶豐山柳氏, 西厓先生之曾孫, 持平修巖先生衿之孫, 掌令千之之女, 生二男四女, 男及二女皆不育.”
- 49) 『息山集』 卷22, 「先府君家狀」, 장1a면, “府君嘗曰, 我見東州, 知時文之不足事, 問易於柳拙齋元之, 從眉叟講論.”
- 50) 柳聖和의 자는 介仲, 호는 西湖, 본관은 豊山이다. 음보로 현감을 지냈고, 호조참판에 증직되고 豊陽君에 봉해졌으며 저서에 『遺稿』가 있다. 『河回 豊山柳氏篇』V(古文書集成 19), 451~464면에 李萬敷가 유성화에게 보낸 1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柳成龍-柳柳-柳元之-柳宜河-柳後常-柳聖和-柳溁으로 주손이 이어 진다.
- 51) 『息山集』 卷19, 「祭柳教官(後常)丈文」, 장24b면, “我先祖卽元祐黨中人也, 我先子, 卽臯比座下客也, 兩家之分, 非今伊昔, 而逮鯁生, 則重托葭莩之誼矣. 我荊祖, 公之先, 我子舅公之胤(柳聖和), 公胤我友, 而公孫我婦.”; 『息山集』 卷21, 「亡室恭人豐山柳氏墓誌」, 장9b면, “恭人偶然一疾, 壽齋五十, 仁天之報施舛歟. 生二男四女, 二男二女俱不育, 長女適士人盧玄壽, 亦早寡, 末女幼(金宅東), 取舍弟萬維第二子之柏子之, 娶柳斯文聖和女, 亦匡老胄孫也.”

내 주었다. 대체로 물건이 오래되면 귀중하게 되는데 허물며 文忠公께서 천하를 경륜한 사업과 고금을 관통하는 학문을 모두 이 책상 위에서 얻었으니 더욱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책상의 재질은 나무이고 대나무 무늬를 새겼으니 안으로는 강함을 취하고 밖으로는 절제를 취하는 것이다. 전란을 거친 뒤 판자는 있으나 책상다리가 없어졌다. 마침내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보수하고 書室의 기물로 삼고서 그 아래에 기록한다.⁵²⁾

유여상은 유성룡의 증손자로 상주부 시리에 이주해 살고 있던 柳彬(1582~1635)의 손자이며 유천지의 둘째아들이다. 식산은 1691년 유천지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1697년 妻鄉인 상주로 이주하게 된다. 식산은 유성룡의 후예들에게 독서하며 고인의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산은 25세 때인 1688년 아버지에게 편지를 올려 과거 폐할 것을 선언한다.⁵³⁾ 젊은 시절부터 병에 잘 걸렸기 때문에 조용히 거처하면서 고인의 서적을 읽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 몸에 허물이 적게 하기를 바란다고 청하니, 아버지도 그것을 허여하였다.⁵⁴⁾ 7~8세부터 원했던 程朱學에 대한 공

52) 『息山集』卷20, 「竹刀識」, 장19b~20a면, “西匡先生竹刀, 傳于修巖先生, 又傳于聘君先生, 此蓋豐山世之舊物也. 余既贅其門, 柳友汝常父, 以余讀古書好古, 贈之. 凡物舊則寶, 況文忠公經綸天地之業, 貫通古今之學, 皆從刀上得之, 尤可感發焉. 刀其質木, 其文竹, 內取剛, 外取節. 兵燹之餘, 有板而無檠, 遂補葺以新之, 以作書室之器, 仍記其下.”

53) 『息山集』卷3, 「上庭下稟廢學書」, 장2a~b면, “凡學莫先於養心, 養心莫先於寡慾. 科舉者, 人之所大欲也, 大欲動則情蕩性鑿, 汚蔑亂雜, 無所不至, 又何學之可論, 甚可懼也. (….) 且子自幼少, 虛薄羸瘁, 加以禍變之餘, 流離撼頓, 殘喘如綫, 安能犯晨夜冒霜雪, 追逐不忌如平人乎, 是則雖欲強之, 而不自堪者也. 只願謝客靜居, 願養精力, 以保性命, 間閱古人文字, 以服膺其教, 而庶幾寡過其身, 復何敢望.”

54) 『息山集附錄(上)』, 「家狀(盧啓元 撰)」, 장2b면, “且子自少善病, 願靜居閱古人書, 以服膺其教, 庶幾寡過其身. 博泉公許之.”; 『息山集』卷12, 「豐山尋訪錄」, 장6a~7b면, “丁丑(1697)之冬, (….) 余起謝曰, 鄙生自少羸病失學, 長而無所著落, 爲保全性命之計, 自廢守靜, 非有嚮善之實也.”

부⁵⁵⁾를 25세부터 전적으로 추구하게 되었고, 특히 유성룡 가계와 혼반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러한 의식은 더욱 공고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식산은 유진의 遺事를 찬술하면서 洪汝河가 평가한 그의 학문적 特長을 인용하고, 이황의 嫡傳을 유성룡이 이어 받았다⁵⁶⁾고 서술하였다. 식산은 영남으로 이거한 이후 이황-유성룡-정경세⁵⁷⁾ · 유진-유원지 · 홍여하-柳世鳴(1636~1688)-柳宜河(1616~1698)-柳後章(1650~1706) · 柳後常 등으로 이어지는 서에게 학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상주에는 유성룡에게 배운 3명의 학자들이 있다. 商山三老라고 일컬어지는 정경세 · 이준 · 진식 등이다.⁵⁸⁾ 식산은 그 후예들과 다층적으로 교류를 하였다. 그 외에도 상주지역 사족인 金命基 · 鄭錫僑⁵⁹⁾ · 康習 · 金宇泰 · 趙泰胤 · 孫萬雄⁶⁰⁾ · 全五益 · 盧思憲 등과 교류하였지만 모두 식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⁶¹⁾

55) 『息山集附錄(上)』, 「家狀[盧啓元 撰]」, 장2a면, “先生遂起而對曰, 小子雖未能, 所願學程朱者也.”; 『息山集附錄(上)』, 「墓誌[李敬儒 撰]」, 장23a면, “在髫髻, 有長老問志, 對曰, 所願學程朱子. 致政府君甚愛之, 盡以內賜性理諸書賜之.”

56) 『息山續集』 卷8, 「修巖先生遺事」, 장7b면, “洪木齋曰: 先生之學, 以謙恭篤實爲本, 而守之以靖確, 出之以退讓, 持之以積久, 行之以正平. 操存體驗, 毋自欺謹其獨之功, 有日進而不已者. 文忠公紹陶翁之嫡傳, 邇來裔於無窮, 功施社稷, 澤被生民.”

57) 李瀾, 『星湖全集』 卷55(『文叢』 199책), 「陶山道脈帖跋」, 506쪽 c면, “陶山道脈帖者, 李仲賓(觀休의 字)之所集也. 以退溪爲首, 其諸門人西厓以下顯名, 及後來旅軒·愚伏諸賢, 咸在編列.”

58) 『息山集』 卷3, 「上雪軒從大父」, 장19a면, “商有三老, 愚伏·蒼石·沙西. 三老并生一時, 家在一鄉, 俱學於匡門.”

59) 鄭錫僑는 鄭經世의 증손자이고, 鄭道應의 아들이며 鄭宗魯의 증조부이다. 그는 鄭道應과 함께 우리나라 역대 사야를 정리하여 『昭代粹言』 12책을 편집했다. 鄭宗魯, 『立齋別集』 卷7(『文叢』 254책), 「行狀[李升培 撰]」, 468쪽 c면, “先生諱宗魯, 字士仰, 姓鄭氏, 晉陽人, 文莊公愚伏先生六世孫也. 在上世有諱澤, 判尙州, 因居焉. 至文莊公仕至天官長, 道學文章, 得陶山再傳之嫡, 爲世儒宗. 生諱杻文科翰林, 生諱道應逸諮議, 號無忝堂, 是於先生爲高祖也. 曾大父諱錫僑縣監, 大父諱淵源參奉, 考諱仁模, 妣岳林洪氏, 生員益龜女, 木齋先生汝河曾孫也.”

60) 孫萬雄(1643~1712), 『野村集』 卷3(『韓國歷大文集叢書』, 1801冊, 景仁文化社, 1997), 「天雲堂記」와 題李仲舒天雲堂 乙酉(1705), 장19a~20a면, 참조.

61) 『息山集』 卷19, 「祭盧鶴巖(思憲)文」, 장20a~b면, “嗚呼痛哉, 不佞何居焉, 嶺南何賴

상산삼로 가운데 전식의 후예인 全游(1670~1715)는 식산과 함께 19년 간 노곡에 살며 교유했고, 주고받은 편지 10통이 전한다. 그는 全湜·全克恒·全克恬(1597~1660)·全罍·全世長 등으로 전하는 가학을 계승하며 상주부 花溪村⁶²⁾에 살았다. 편지의 내용은 정경세의 예설과 이옥이 만들기 시작하여 식산이 완성한 『四禮綜要』에 근거한 예학에 대한 논증, 그리고 『대학』·『논어』·『중용』·『근사록』·『주자서절요』 등 기본적인 성리학 관련 서적을 강론한 것이다.⁶³⁾

이준의 현손 李增運과 주고받은 편지 7통은 대부분 성리학과 사대부의 교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친구 가운데 자질이 뛰어난 정경세의 후손 鄭胄源(1686~1756)과 함께 힘써 가학을 계승하라⁶⁴⁾고 권장하였다. 또 이준의 형 李堧(1558~1648)의 묘갈명⁶⁵⁾에 跋文⁶⁶⁾을 지어 趙綱이 기록하지 못한 이전의 후손을 보충하고, 그들이 상주의 명문사족임을 천명하였다.

정경세⁶⁷⁾의 玄孫이고 鄭道應(1618~1667)⁶⁸⁾의 손자인 정주원과 5통의 편

焉. 瓶良 金都事命基, 清而慈; 栗里 鄭英陽錫僑, 敦而冲; 注巖 康參奉習, 直而諒; 道村 金參奉宇泰, 愨而謹; 城西 趙公泰胤, 磊落而峻截之, 五得者既失之矣. 野村令(孫萬雄), 西川丈全公五益, 與公在, 有以賴乎晚途, 今公與野村大化, 有若相約而歸者, 今無所適從矣.”

- 62) 『息山集』 卷3, 「上雪軒從大父」, 장19a면, “商有三老, 愚蒼二公, 暨故知樞沙西全公是也. 及來寓魯谷, 東麓之西曰羅浮村, 西麓之南曰花溪村, 皆全氏世居也.”
- 63) 『息山續集』 卷7, 「全休甫(游壙銘并序)」, 장5a면, “愛讀小學, 家禮, 不止講說, 而欲著之日用常行, 而與余講大學, 論語, 中庸, 近思錄, 朱子書節要諸書.”
- 64) 『息山集』 卷8, 「答李公健(增運)」, 장10a~b면, “惟願朋友, 如賢與鄭元甫, 好資質優才地之人, 承家學之傳, 勵邁往之氣, 如登山止頂, 浚井及泉.”
- 65) 李堧, 『月澗集附錄』 卷2, 장1a~4b면, 「墓碣銘趙綱撰」(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실려 있으나, 『龍洲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李堧의 자는 叔載, 호는 月澗, 본관은 興陽이다.
- 66) 『息山續集』 卷5, 「月澗先生墓碣銘跋」, 장36a~b면, 참조
- 67) 鄭經世의 저서는 『愚伏集』·『朱文酌海』·『喪禮參考』·『養正篇』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朱文酌海』는 李湜의 『朱書節要』와 함께 주자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 68) 鄭道應의 자는 鳳輝, 호는 無忝齋, 부는 鄭杞, 조부는 鄭經世이다. 申碩蕃·趙任道·河弘道·柳千之·鄭克後 등과 遺逸로 천거되었고, 1648년에 大君師傅가 되고

지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은 독서⁶⁹⁾와 출처⁷⁰⁾ 그리고 가학의 계승을 권면하였다. 식산의 조부 이관징은 정도응과 동갑으로 挽詞를 지어 그를 애도했다. 식산은 주희의 『童蒙須知』와 정경세의 『養正篇』⁷¹⁾을 참조하여, 『書室儀』⁷²⁾를 제정하여 養正齋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식산 사후에는 정주원의 손자 鄭宗魯(1738~1816)는 식산의 손자 李承延(1720~1806)과 중유했고, 증손자 李敬儒(1750~1821)⁷³⁾와 함께 1813년 상주의 北長寺에서 『息山集』을 교정하고 간행하였다. 식산이 조선의 성리학설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道東編』의 서문⁷⁴⁾을 지어 간행할 준비를 하였으나 물력의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 식산가와 정경세가문은 학문적 교류관계⁷⁵⁾를 지속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뒤에 벼슬이 謫議에 이르렀다. 저서에 문집 『無忝齋』 4卷, 야사 자료집 『昭代粹言』 12卷, 조선시대 역대 명신의 행적을 편집한 『昭代名臣行蹟』 8卷 등이 전한다.

- 69) 『息山集』 卷9, 「答鄭元甫(胄源)」, 장8b면, “讀書有未精之歎, 乃是通患, 然亦在我而已.”
- 70) 『息山續集』 卷2, 答鄭元甫, 장1b면, “惟在賢者去取, 務得至當如何耳.”
- 71) 鄭經世, 『愚伏別集』 卷2 『文叢』 68책, 『養正篇』, 425쪽 c~428쪽 a면, “盥櫛~寫字” 등 28조목으로 나누어 書堂에서 익혀야 할 예절을 기록하였다.
- 72) 『息山集附錄(上)』, 「家狀[盧啓元 撰]」, 장4a면, “精舍側爲置書齋, 以處諸生, 遂取朱子童蒙須知及近世所傳(鄭經世)養正篇, 折衷爲書, 名曰書室儀. 教導作成之方備焉, 用課齋中.”; 『息山全書』二, 『息山志書』 卷2, 288쪽 a~286d면에 『書室儀』가 실려 있다.
- 73) 李敬儒의 자는 德懋, 호는 林下·滄海·半俗, 고조는 李沃, 증조는 李萬敷, 조부는 李之彬, 부는 李承延이다. 李萬敷의 墓誌를 찬술하고, 유문을 정리한 후 「息山集後識」를 짓고 상주 北長寺에서 간행하였다. 저서에 『林下遺稿』 12권 6책의 일부가 필사본으로 전하고, 남인시맥을 근간으로 韓·中 詩話를 채록한 『滄海詩眼』(權泰文氏 所藏, 上(76)·中(192)·下(106條), 3권 1冊, 374章)이 전한다. 權泰乙, 「滄海詩眼考察」(『영남어문학』 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漢文學研究-尙州地域을 中心으로-』, 문창사, 2005, 31면에 재수록) 참조.
- 74) 鄭宗魯, 『立齋集』 卷28 『文叢』 253책, 「道東編序」, 475쪽 a~d면, 참조.
- 75) 鄭經世, 『愚伏集』 『文叢』 68책, 317쪽 b~318d면에 「贈議政府領議政李公神道碑銘」은 이만부의 5대조 李澍의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이다.

2) 尙州의 士人層과 交遊

다음으로 상주의 士族인 홍여하·이구·조정·노수신 등의 후손 및 황익재·권상일 등과 교유양상을 살펴보자. 그리고 상주 출신은 아니지만 식산을 찾아와 교유한 인물인 오상원·신유한·이형상·조현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상주부 함창현 율리에 세거하던 홍여하는 김종직의 문인으로 대제학을 지낸 洪貴達의 5세손이다. 그는 부친 洪鎬(1586~1646)와 함께 정경세 문하에서 수학하였고,⁷⁶⁾ 17세기 영남 지역의 유학자이며 역사가⁷⁷⁾로 명성이 높았다. 홍여하는 문경현 山陽에 거주하는 李榘(1613~1654)와 金蘭之交를 맺으며 성리설과 경학 그리고 역사서를 깊이 연구하였다. 식산의 조부 이관징과 처부 유천지는 홍여하와 막역한 사이였다.⁷⁸⁾ 그는 사후에 洪彦忠(1473~1508)·이구 등과 1693년 문경현의 近岳書院에 配享되었다.

홍여하의 손자 洪大龜(1670~1731)는 식산과 주고받은 편지 2통⁷⁹⁾과 만시⁸⁰⁾ 1수가 전한다. 이구의 증손 李植春의 자는 德和이며, 식산과 주고받은 편지 6통이 전한다. 그 내용은 伯夷傳을 분석하는 방법, 육경론, 문장론

76) 洪汝河, 『木齋集』 卷11(『文叢』 124책),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 知製教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洪大龜 撰)」, 537쪽 c면, “愚伏曰, 此兒已解理氣先後, 異日必成大儒矣.”; 李玄逸, 『葛庵集』 卷26(『文叢』 128책), 「通訓大夫司諫院司諫木齋先生洪公行狀」, 306쪽 a면, “公年甫九歲, 每遊戲, 未嘗相背而坐, 識者已知其非常. 未幾, 從大諫公, 謁鄭先生于漢陽私第, 先生問以中庸首章章句義, 公對曰, 若曰氣以成形, 而理亦賦焉, 則似氣先而理後, 以本具字代亦賦字, 義較著矣. 先生奇其對, 以爲異日必成大儒.”

77) 安鼎福, 『順菴集』 卷18(『文叢』 230책), 「東國通鑑提綱序 丙午」, 166쪽 b면, “愚伏鄭先生見而奇之曰, 異日必成大儒. 及長, 遍讀四書五經, 左國班馬, 至於禮樂刑法, 田乘兵謀, 陰陽律曆, 靡不講究.”

78) 『息山集』 卷22, 「通訓大夫司憲府掌令豐山柳公行狀」, 장33a면, “惟公(柳千之)與我王考致政公暨木齋洪公, 有莫逆義.”

79) 『息山集』 卷6, 「答洪國寶大龜」, 장10b~11a면; 「答洪國寶」, 장11a~b면 등이 있다.

80) 『息山續集』 卷5, 「洪國寶挽」, 장9b면, “嶺南人物世不數, 力能屠龍仍環堵, 矧子不願論簪笏, 頽然自保毛髮古.”

등이다. 李國春의 자는 致和이고 역시 이구의 증손으로 식산과 주고받은 편지 21통이 전한다.

1716년 발생한 홍수로 노곡의 식산정사는 수재를 당하여 무너진다. 그러므로 식산은 露陰山房과 문경현의 華陰洞에 우거하며 거처할 곳을 찾았다. 1719년 풍양조씨가 세거하고 있던 상주 북곽 升谷에 터를 정하고, 時習齋와 거처하는 升室을 건립하고 이주한다. 승곡에 세거하던 趙靖(1555~1636)은 정구의 문인이고, 동생 趙翊은 유성룡의 문인으로 상주의 在地土族이다. 식산은 그들의 후예들과 종유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조정·조익-趙興遠-趙槩-趙德胤·趙元胤-趙自敬·趙自愼·趙自脩-趙天經 등으로 이어지는 학자들이다. 식산은 조정 후손들의 부탁을 받고 조흥원과 조도의 墓誌銘⁸¹⁾을 찬술하였다. 그리고 주고받은 편지로 조자경 5통, 조자수 1통, 조천경 1통 등이 전한다. 그 중에 조천경(1695~1776)⁸²⁾은 독실하게 공부하여 식산의 박학정신을 계승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상주의 首書院인 도남서원에 盧守愼(1515~1590)⁸³⁾이 배향되어 있다. 식산은 그의 후손 盧思聖(1643~1716)과 종유하여 그의 아들 盧夏鼎(1669~1695)이 지은 「金剛錄」에 발문⁸⁴⁾을 지었다. 자신의 딸을 노하정의 아들 盧

81) 『息山集』 卷21, 「屏麓處士趙公(興遠)墓誌銘并序」, 장15a~16b면; 卷21, 장17a~18b면, 「趙公(槩)暨延安李氏墓誌銘并序」 참조.

82) 『立齋集』 卷38(『文叢』 254쪽), 「易安堂趙公墓碣銘並序」, 138쪽 b면, “豐壤趙公, 諱天經, 字君一, 贈吏曹參判黔澗先生諱靖之五世孫也. 高祖諱興遠, 曾祖諱槩, 祖諱德胤, 號廣川, 考諱自愼, 妣安東權氏, 大司諫壽曾孫, 生員繼亨女, 以肅廟乙亥正月日生公. 天資聰明穎悟, 才氣超邁, 五六歲已屬文, 有驚人語, 既長, 遊李息山門.” 그는 15세에 李萬敷의 문하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사색하기에 힘써 들은 바를 반드시 필기하여 手寫本이 300여 책에 달하였다. 저서에 고금 인물의 事蹟을 편찬한 『五侯鯖』 80권이 있었고 『易安堂集』 4권이 전한다.

83) 『息山集』 卷17, 「上洛文會記」, 장28a면, “上洛治東二十里, (….) 卽道南書院也. 祀前朝圃隱先生及我朝寒暄, 一蠹, 晦齋, 退溪四先生, 以蘇齋, 西厓, 愚伏三先生配焉.”

84) 『息山集』 卷18, 「盧器夫夏鼎金剛錄跋」, 장5a~6b면, 참조. 盧夏鼎의 자는 器夫, 호는 雪汀이고, 『雪汀府君遺稿』가 필사본으로 전한다.

玄壽에게 출가시켜 혼반관계를 맺었다. 또 노수신의 6대손 盧啓元(1695~1740)과 편지 10통을 주고받으며 자식처럼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다. 뒤에 식산의 高弟가 되어 장편의 「挽詞」와 「祭文」 2편을 지어 스승의 학덕과 행적을 곡진하게 서술하였다. 또 식산의 遺命을 받들어 「家狀」을 찰술하고, 경기도 안산으로 李灑를 찾아가 식산의 「行狀」을 청하였다. 이익은 노계원이 지은 식산의 「가장」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⁸⁵⁾ 그 뒤 이협·이만유 등과 함께 식산의 유문을 수집하여 간행할 준비를 하였고, 식산의 학문을 계승하여 후학들에게 전하였다.

黃喜의 후손 黃翼再(1682~1747)와 편지 15통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였다. 「送愁州使君黃再叟序」⁸⁶⁾·「白華清晤記」⁸⁷⁾·「藏菴洞記」⁸⁸⁾ 등은 그를 위하여 지어준 글들이다. 1721년(58세) 안동지역 인사들과 학문적 알력 때문에 상주를 떠나 금릉의 蟾峰에 집을 빌려 거처한다. 1722년 금릉에서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남학과 학인들의 비학문적 갈등을 우려하고⁸⁹⁾ 있다. 또 식산이 금릉에서 상주의 시습재로 돌아와 답한 편지에, 고향 한양을 떠나 영남에 은거하며 겪었던 처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금릉으로 이거한 것은 그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口腹을 위한 계획만은 아니었다. 아! 賤弊한 필부는 노쇠함 이미 극에 달했다. 세상과 교섭하지 않은 지 40년, 그러나 나는 대대로 녹봉을 받은 신하의 후예이니 漆室의 처녀가 나라 걱정할 것 같은 충심은 저 벼슬아치의 무리에 감히 뒤지지 않는다. 늙

85) 李灑, 『星湖全集』 卷66(『文叢』 200책), 「息山李先生行狀」, 128쪽 c면, “有高第弟子盧徵士啓元, 一一哀錄, 以先生遺意, 畏托於灑, 俾撰行狀, 此實士友傳誦贊歎, 而徵士固善言也, 灑何問焉.”

86) 『息山續集』 卷5, 「送愁州使君黃再叟序」, 장22b~23b면.

87) 『息山續集』 卷5, 「白華清晤記」, 장28b~29b면.

88) 『息山續集』 卷5, 「藏菴洞記」, 장29b~30b면.

89) 『息山集』 卷8, 「答黃再叟」, 장23a~b면, “蓋嶺爲士大夫所根柢, 而其論議輕重, 又自上游主之. 以此時輩以化外處之, 疑忌日深. 況商顏流寓, 俱非無名家子弟, 而將來波奔萍流者, 亦應不少. 黨遂壞亂, 又漸踵下鄉之習. 大觀小觀, 隱憂切切.”

도록 죽지 않아 마음을 놀라게 하고 혼백을 떨게 하는 말이 날마다 귀에 들리니, 아득한 창천이여 이 어느 때인가? 다만 심산의 농부가 되어 세상을 잊으려 한 까닭은 이름을 없애려던 일이지, 어찌 즐거서 한 것이겠는가? 不得已 해서 한 것일 따름이다.⁹⁰⁾

식산은 경제적 궁핍보다 학자들의 曲學阿世와 관리들의 趨利附勢 하는 태도가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실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지식인으로써 40년간 양심적인 태도를 지켜온 것이 얼마나 험난했던가를 이 글을 통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식산은 1728년 근기남인의 명문가 전주이씨 李雲徵의 손자이며 李弘憲의 아들인 李麟佐와 영남우도의 鄭蘊의 5대 봉사손 鄭希亮 등이 주도한 戊申亂이 발생하자, 65세의 病軀를 이끌고 召募使 황익재와 함께 역적 토벌을 상의하고,⁹¹⁾ 격문을 지어 倡義를 도왔다. 그리고 아들 李之彬(1701~1729)⁹²⁾과 동생 그리고 친척들을 창의에 가담케 하였다. 그것은 평소 간직하고 있던 盡忠報國의 충효의 정신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道南書院의 원장이 되었을 때 가르침을 받고 그 뒤 편지를 주고받으며

90) 『息山集』 卷8, 「答黃再叟」, 장23b~24a면, “前年金陵之遷, 蓋不無意焉, 非直爲口腹計也. (...) 嗟呼! 賤弊一匹夫, 老朽已極, 不與世交涉四十年. 然自以世祿之後, 漆室葵藿之誠, 不敢後於紆青拖紫之輩. 久而不死, 驚心悸魄之言, 日入於耳. 悠悠蒼天, 此何時也. 所以只願作深山一農, 以沒世而無所名也, 夫豈所樂哉, 不得已也.”

91) 『息山續集』 卷2, 「答召募使黃再叟」, 장7b면, “嗚呼痛哉! 方今聖明在上, 二鄰戢睦, 夫何狂瀾妖氛, 忽起邦內, 猖獗畿湖, 都下鼎沸, 窮凶大慝, 載籍所罕, 神人之憤, 尙忍言哉! 鄙生老而不死, 見此大變.”

92) 李之彬의 生父는 이만부의 동생 李萬維이고 初名은 之柏, 자는 士文이다. 『戊申倡義錄』, 「尙州條」에 그의 성명이 李之柏으로 기재되어 있다. 1729년에 작성된 상주 연안이씨 식산중가의 戶口單子를 통해 之柏에서 之彬으로 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의 아들 李承延(1720~1806)과 李秉延(1726~1762) 등은 18세기 南人詩壇에 詩名으로 이름이 났고, 저서에 『鹽州世稿』(李萬維, 李承延, 李秉延 共著, 影印本. 線裝1冊, 288쪽) 속에 『剛齋遺稿』(李承延)와 『半龔齋遺稿』(李秉延)가 전한다. 진재교(2001), 362~364면 참조.

중유한 사람은 權相一(1679~1759)·申正模(1691~1742)·吳尙遠⁹³⁾ 등이다. 신정모는 의성현에 살면서 도학과 충절이 탁월했던 申適道(1574~1663)의 현손이다. 그는 李玄逸(1627~1704)의 문인으로 식산과 李栽(1657~1730)에게 동시에 배웠던 인물이다.⁹⁴⁾

문경현 근암리에 살고 있던 權상일은 이황과 장현광의 영향은 받았던 사족의 후예이다.⁹⁵⁾ 그는 도남서원으로 가서 오상원과 함께 식산에게 훈도를 받으며 깊이 인정을 받았다. 그와 주고받은 편지 30통이 전한다.⁹⁶⁾ 식산은 權상일의 자질을 매우 훌륭하게 여기며, 성리설이 학문의 頭腦處이니 그것에 조금의 착오도 없이 철저하게 연구하기를 권면하였다. 權상일은 만사와 제문을 지어, ‘식산은 도학에 침잠하여 공맹·정주학을 추구하고, 허목과 이현일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⁹⁷⁾ 1733년 식산 사후 1

93) 『息山集』卷2, 甲辰仲春, 權台仲 相一, 號清臺, 與申景楷, 正模, 來道院, 約吳致重尙遠, 號峩峩, 文會, 老人亦重違其勤意, 擺病而赴, 仍留數日. 諸君共讀近思錄, 頗有講磨之益, 老人以病冗先歸, 台仲寄來一律, 遂步其韻, 屬三君焉. 甲辰(1724), 장 26a~b면, “原韻; 道院絃歌會, 柴門几杖移, 微言論次第, 吾道卞他歧, 江闊淵源驗, 山清氣象知, 從容五日誨, 勝下十年帷.”

94) 『息山續集』卷2, 『答申景楷(正模)』, 장19a면, “承與密庵有講質之益, 甚善甚善, 戒懼兼動靜之說, 未知如何. 年前密庵與趙學士, 有所論難, 嘗得窺其往復文字矣, 今無乃前議更起耶.” 申正模의 자는 景楷, 호는 二恥齋, 본관은 鵝洲이고, 저서에 『二恥齋集』 6권 3책이 전한다. 『二恥齋集』卷2에 「與息山李丈」이란 제목 하에 4통(乙未(1715), 丙申(1716), 癸卯(1723), 甲辰(1724)의 편지가 실려 있다. 또 李萬敷에게 배운 『近思錄』의 내용을 李栽에게 疑問한 편지도 『二恥齋集』에 실려 있다.

95) 蔡濟恭, 『樊巖集』卷42『文叢』 236책, 「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清臺權公諡狀」, 263쪽 d~264a면, “公諱相一, 字台仲, 安東之權, 皆以麗太師幸 爲鼻祖, 氏族之望也. 有諱大器, 贈執義, 號忍齋; 諱宇, 王子師傅, 贈承旨, 號松巢, 仍父子遊退陶門, 以學行著, 於公五世六世也. 松巢公躋享院祠, 是生國子生員諱益隣, 從學旅軒張先生; 生員生諱坵, 亦國子生員, 有文學, 號溝壑齋, 贈左承旨; 承旨生諱以僞, 贈吏曹參判, 參判生諱深, 公之皇考也.”

96) 『息山集』卷2, 「得權台仲寄吳致重新春吟, 非止詞藻清雅, 其感時進修之意, 令人斂衽, 聊步其韻, 卻寄清案, 二首」, 장50b~51a면, “古義見二子, 交道出寒暄, 管子坐穿榻, 董生不窺園, 挿冰壺心清, 爇爐香篆溫, 子輩久研幾, 爲問能逢原, 綿綿品彙廣, 并值資始元, 惟此老禿翁, 掩體臥窮村, 艷聞祇林期, 恨未拾緒言.”

97) 『息山集附錄(下)』, 「挽詞權相一 撰」, 장11a면, “素琴不奏今人曲, 黃卷惟傳古聖心,

년이 되었을 때 시를 지어 식산을 추억하며 그가 사문의 老儒였는데 쓸쓸히 지하에 묻혀 있어 애석하다⁹⁸⁾고 읊었다.

권상일은 식산 사후에 허목의 학통을 계승하여 근기남인의 영수가 된 이익⁹⁹⁾과 수 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기설과 학문을 토론하여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의 학술교류를 지속하였다.¹⁰⁰⁾ 또 안동지역의 金聖鐸(1684~1747)·權萬(1688~1749)·李象靖(1711~1781) 등 갈암계 학인과 폭넓게 교류하여 ‘가장 충실한 退溪 祖述者 權淸臺’¹⁰¹⁾라는 평을 받았다. 사후에는 식산과 함께 1786년 문경의 近岳書院에 從享되었다.

다음은 타지역 출신이지만 상주에 식산을 찾아와 교류한 인물을 살펴볼 것이다. 식산에게 經學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은 吳尙遠(?~1733, 호는 竹厓·峩嵯)¹⁰²⁾은 1718년 근기지역에서 상주로 이주¹⁰³⁾한 근기남인이다. 식산과 주고받은 편지 24통이 있다.

무릇 사람의 처세는 참으로 어렵다. 더구나 오늘날 풍속에서 으레 보는 일은 이 쪽 사람이 적으면 비웃어 얹보고 많으면 시기 질투하여 배척하여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한 점 흠이 없는 大聖의 학설을 가지고 질책하여 학자들로

啓發羣蒙春德澤, 消融纖翳月宵襟, 吁嗟吾道今安托, 千載商顏仰碧岑.’; 祭文[眷下生 權相一 撰], 장24b면, “沿泝洙泗, 游泳閩洛, 維眉與葛, 親覲其德.”

98) 權相一, 『淸臺集』 卷2, 「憶息翁」, 장7a면, “猗歟息山翁, 高墳已宿草, 少微沈星光, 斯文喪儒老.”

99) 『星湖先生全集附錄』 卷1(『文叢』 200책), 「墓碣銘并序(蔡濟恭 撰)」, 195쪽 c면, “但念吾道自有統緒, 退溪我東夫子也. 以其道而傳寒岡, 寒岡以其道而傳眉叟, 先生私淑於眉叟者, 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緒.”

100) 이수건(1995), 418쪽의 주석 286면; (2000) 등을 참조.

101)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가장 忠實한 退溪祖述者 權淸臺의 學說」(『小田先生頌壽 記念朝鮮論叢』, 大阪屋號書店, 1920년), 417~467쪽 참조.

102) 吳尙遠(?~1733)의 자는 致重, 호는 竹厓·峩嵯, 본관은 同福이고, 부친은 吳始震(1638~1716)이다. 兄 吳尙欽은 이만부의 初娶夫人과 인척관계이다. 오상원은 근기 지역에 있을 때는 玉洞 李澈(1662~1723)와 함께 교류하였다.

103) 李澈, 『弘道遺稿』 卷5(『近畿實學淵源諸賢集』 1, 대동문화연구원, 2002), 「送李斯文 仲舒之居嶺南之尙州」· 送吳君尙遠之嶺南」, 462쪽c~464b면, 등을 참조.

하여금 발붙일 곳을 없게 한다. 가끔 이런 일로 인하여 지조를 고치는 사람이 많아 지니 매우 개탄스럽다. 배를 전복 시켜 침몰시킨다[沈舟]는 말은 대체로 더욱 시속을 개탄함이 한심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자기의 무리만 옹호하려는 기미가 있으니, 의도가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⁰⁴⁾

식산은 당시 영남학계가 성현의 본질적인 학문을 외면하고 자기 학파의 학설만 고수하는 弊害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沈舟說은 白居易의 「太行路」¹⁰⁵⁾에 “무협의 거센 물결이 능히 배를 뒤엎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에 비긴다면 편안한 흐름이네. 당신의 마음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몹시도 일정치 않아서, 좋아할 적에는 머리털을 나게 하지만 싫어할 적에는 종기를 나게 한다네.”라는 구절의 전고를 인용한 것이다. 일정하지 않는 영남남인계 학자들의 사적인 好惡가 배를 전복시키는 물보다 더 두렵다며, 함께 상주로 이주한 오상원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드러내며 경계하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평소 허목을 사숙해온 庶孽系 문인 申維翰(1681~1752)¹⁰⁶⁾은 1706년에 식산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시문을 창수하며¹⁰⁷⁾ 친분을 맺는다. 그 뒤 1719년 통신사 洪致中의 제술관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가면서 4월 19일 상주를 지날 때 식산을 방문한다.¹⁰⁸⁾ 또 돌아온 뒤에는 일

104) 『息山集』 卷7, 「答吳致重」, 장4a~b면, “凡人處世固難. 況今俗例見, 此邊人, 小則笑侮, 大則忌嫉. 擠作異類, 而遽以大聖無一疵, 責之, 使學者, 無所著足之地. 往往因此, 改操者衆, 甚可慨也. 沉舟等說, 槩亦慨. 俗太過, 而反有衛護之味, 無乃有所爲而發乎?”

105) 顧學頤 校點, 『白居易集』 1冊, 中華書局, 1999, 「太行路」, 64쪽, “巫峽之水能覆舟, 若比君心是安流, 君心好惡苦不常, 好生毛髮惡生瘡.”

106) 申維翰은 허목을 존중하여 상고정신에 입각한 擬古文을 지었고, 식산의 학문을 흠모하여 息山精舍에 방문한다. 『息山別集』 卷1, 『陋巷錄』, 「附天雲堂題詠」, 장 11a~12a면에 신유한의 장편시 3수가 실려 있다.

107) 申維翰, 『靑泉集』 卷2(『文叢』 200책), 「奉呈息山李處士萬敷」, 271쪽 a면은 1698년에 지은 작품이고, 『息山集』 卷1, 「次申生維翰, 號靑泉, 丙戌(1706)」, 장22a~23a면에 原韻과 함께 실려 있다.

108) 『靑泉續集』 卷3(『文叢』 200책), 『海槎東游錄』, 423쪽 c면, “己亥四月, 十九日朝, 訪

본에서 견문한 것을 기록한 『海游錄』을 식산에게 소개한다.¹⁰⁹⁾ 또 신유한이 가져온 일본학자들의 저서와 한당 시대의 고서¹¹⁰⁾에 대하여 권상일을 통해 입수하여 읽는다.

영천에 살다가 상주로 이거하여 경학·예학·성리학·악부시·음악 등을 토론한 李衡祥(1653~1733)¹¹¹⁾은 식산의 학문업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식산을 애도하는 「祭文」¹¹²⁾ 속에 두 사람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秋水精神玉灑塵 추수처럼 맑은 정신과 속기 씻어낸 옥안의 그대

李處士萬敷少話. 夕次開寧.”

- 109) 『息山集』 卷8, 與權台仲, 장34a면, “申典籍維翰, 方此留連, 時來穩話, 得日東事頗悉. 所謂源正之者, 頗知學問, 編摩程朱大訓, 傳至他邦, 秉彝所同, 益可驗矣. 其書借在貴案, 如已覽過, 幸付示爲妙.” 申維翰은 1720년 40세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한다.
- 110) 『靑泉集』 卷10(『文叢』 200책), 『年譜』, 542쪽 b면, “我肅宗大王四十五年 己亥, 先生三十九歲, 藁裝蕭然, 只有所買歸者, 漢唐書百卷, 赤間硯一箇而已. 扈齋任吏部珽, 贊『海槎錄』曰, 文章一健筆, 可敵千甲兵.”; 權相一, 『淸臺日記』 5冊(『淸臺全集』 上, 여강출판사, 1989), 567면, “庚子(1720) 二月, 一日戊戌 晴. 申周伯, 送日本冊, 玉山講議二卷·三子傳心錄三卷·二程治教錄二卷.” 참조
- 111) 蔡濟恭, 『樊巖集』 卷40(『文叢』 236책), 「嘉善大夫慶州府尹瓶窩李(衡祥)公行狀」, 227쪽a~229b면, “若李游齋玄錫贊公詩曰, 洋洋大海波千頃, 落落長松翠十尋. 若李芹谷觀微 題品公風儀曰, 每立朝班游目, 從上而下, 必於公視自注, 從下而上, 必於公視自注. 試察衆目, 亦皆屬公. 自中年嘉遷以來, 專心性理, 夙興對書, 逐字研究, 隨得箇錄. (...) 嘗著四書三經講義, 俾有所參考, 拈所學章內最緊句爲題, 日有課製.”라는 기록을 보면 이형상은 李萬敷의 외삼촌 李玄錫과 조부 李觀微에게 촉망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방대하게 연구하여 142종 326책의 遺稿를 남겼는데,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瓶窩全書』 10책으로 영인하였다. 『息山集』 卷4에 李衡祥에게 준 26통의 편지가 실려 있고, 『息山集』 卷14, 「瓶窩講義辨證 과 「瓶窩講義辨證[再辨]」 등이 실려 있다. 『瓶窩集』 卷6에 李萬敷에게 준 편지 2통과 『瓶窩集』 卷7에 편지 10통이 실려 있다.
- 112) 李衡祥, 『瓶窩集』 卷15(『文叢』 164책), 「祭李別提萬敷文」, 474쪽a~b면, “吾嘗曰, 用雖不盡, 述作多透, 道東諸篇, 尤是學問中語也, 靈亦以爲攻之者, 乃所以愛之也. (...) 簪吟一絕曰, 秋水精神玉灑塵, 知公如我亦無人, 深衣盡制璣衡古, 地下空潛席上珍.”

知公如我亦無人 공을 나처럼 알아보는 사람도 또한 없을 것이네.
 深衣盡制璣衡古 심의¹¹³⁾와 선기옥형¹¹⁴⁾의 옛 제도를 다 알았으나
 地下空漚席上珍 자리 위의 보배¹¹⁵⁾가 부질없이 지하에 잠겨 버렸네.

제문의 뒤에 붙인 시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知音 이상임을 슬회하고 있다. 그리고 도학을 깊이 연구하여 터득했지만 세상에 퍼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을 슬퍼하고 있다.

少論系 탕평파로 교육제도를 질정한 趙顯命(1690~1752)¹¹⁶⁾은 당색을 초월하여 식산과 교유한 인물이다.¹¹⁷⁾ 그는 1730년 7월 慶尙監司로 부임하여 慶尙監營에 樂育齋를 설치할 때, 식산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을 받아 學規

- 113) 深衣는 제후·대부·사가 평소 집에서 입던 의복이다. 『禮記』, 「深衣」 제39편에, “古者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라고 정의하고 있다. 『瓶窩集』 卷7, 164쪽, 「答李仲舒問目, 深衣制度」, 317쪽b~320b면은 深衣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息山集』 卷4, 「答瓶窩」, 장51b~53b면의 내용은 深衣에 대하여 다시 고증한 것이다.
- 114) 璣衡 : 『書經·舜典』에 “璇璣玉衡을 살펴 七政의 운행을 바로잡는다.”라는 말이다. 璇璣玉衡의 약칭으로 渾天儀라고도 한다. 해·달·별의 天象을 그려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기구인데, 四脚의 틀 위에 올려놓고 회전시키면서 관측하도록 되어 있다. 『瓶窩集』 卷2『文叢』 164쪽, 「咏璣衡, 謝李仲舒」, 225쪽 b면, “山人遺我玉衡儀, 聖制分明座上移, 窮格自從天品覺, 測窺寧待日官知, 星躔內挈三辰合, 刻度高懸兩軸持, 拱極如今環侍密, 擬將義績助明時.” 권상일의 『淸臺日記』 甲辰(1724) 五月, 初一日, “癸卯, 晴. 李上舍叔新造璿璣(璿璣玉衡), 持見息山, 以爲大槩似好, 間有未盡處. 吾曾作一件, 置之魯谷舊家, 從當送來, 與次相證云.”에서 息山이 일찍이 선기옥형을 제작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115) 席上珍 : 『禮記』, 「儒行篇」, “유자는 석상의 보배를 가지고 초빙을 기다린다[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는 말에 유래한 전고로, 도덕이 고상한 선비가 훌륭한 도를 품고 등용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 116) 이만부의 재종조부 李斗徵(1645~1706, 38)의 父는 李昶(1590~1637)이고, 母는 풍양 조씨로 忠貞公 趙珩의 딸이다. 趙顯命은 李斗徵과 그 아들 李河에 대하여 「安陰縣監李公(斗徵)墓碣銘」(『歸鹿集』 卷14), 「刑曹正郎李公(河)墓誌銘」(『歸鹿集』 卷15)라는 글을 지었다. 인척관계를 검토해 보면 조현명은 李萬敷의 척질(戚侄)이 된다. 『歸鹿集』 卷13, 「答李參奉萬敷書」의 “戚侄徒爾奔走, 未獲靈應.”을 참조.
- 117) 『息山續集』 卷4에 조현명과 주고받은 편지 17통이 실려 있고, 『歸鹿集』 卷13의 「答李參奉萬敷書」, 卷6의 「條上養士節目疏」 등은 이만부와 연관된 글이다.

를 정하였다.¹¹⁸⁾ 식산이 1731년 상주향교 都訓長이 되었을 때 조현명은 함께 참여하여 강론하기도 하였다. 그는 식산 사후에 挽詞¹¹⁹⁾를 지어 상주향교에서 강학한 일을 추억하며, ‘경상의 집안에서 산야의 기질을 타고났다 [卿相門闌山野質]’고 평하였다.

위에 든 사람 이외에도 식산이 교유한 상주권 학인은 다양하다. 문경에 살면서 식산에게 배우고 뒤에 이익과 교유한 洪相朝(1690~1756) 그리고 申濬의 손자이며 申康濟의 아들인 인 申濬(1678~?) 등이 있다. 다음은 안동 지역 같암계 학인들과 교유 양상을 살펴보겠다.

4. 安東圈 葛庵系 學人과 交遊

1697년 식산과 함께 落南한 계부 李浹은 안동의 東厓(필자주 : 현재 안동시 법흥동)에 거처하였다.¹²⁰⁾ 이관징은 4명의 아들에 대하여 特長을 지적하였는데, 이협에게는 사람됨이 불 만하다¹²¹⁾고 하였다. 낙남 이후에 이협과 이만부가 중유한 남인계 선배 학인들은 이현일 · 丁時翰(1625~1707) · 李惟樟(1625~1701) · 柳宜河(1616~1698) 등이다.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많았는데 자식들이 잘 보관하지 못하여 대부분 없어졌다¹²²⁾고 밝히고

118) 『息山集附錄(上)』, 「墓誌[李敬儒 撰]」, 장22a면, “趙相國(顯命-인용자 주)之觀察嶺南也, 重修樂育齋, 以養士學規, 來稟于先生以定焉.” 식산과 趙顯命이 논의한 樂育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歸鹿集』 卷13(『文叢』 212책), 479쪽b~c면, 答李參奉萬敷書 및 『息山續集』 卷4, 「答趙時晦, 別紙樂育齋節目」, 장10b~15a면 참조

119) 『息山集附錄(下)』, 「挽詞 [趙顯命 撰]」, 장2b면, “公會爲我奏清琴, 我亦從公和敬箴, 商館離盃鬢舍講, 祇今追憶摠傷心.”

120) 『息山集附錄(下)』, 「祭文[李浹 撰]」, 장36b면, “君與我未及中身, 大謬初計, 而同行淪落人於大嶺之外, 商山君寓也, 花山我居也.”

121) 李光庭, 『訥隱集』 卷13(『文叢』 187책), 東厓李公墓誌銘并序, 373쪽 a면, “致政公亦嘗曰, 沃之文, 淑之書, 浹之爲人; 公之詞翰, 亦見推儕流, 而致政公獨學其爲人.”

122) 『息山集』 卷18, 「書四公簡帖」, 장25b~26a면, “及長, 又頗從長者後, 得不爲其疏絕. 蓋南嶽李公之博學多識, 愚潭丁公之特立獨行, 孤山李公之清高絕俗, 忠孝堂柳公

있다.

식산은 근기남인으로 원주에 거주하며¹²³⁾ 주자·이황·정구·장현광·허목의 영향을 받고 眞儒醇學으로 평가 받은¹²⁴⁾ 정시한에게만 선생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公)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식산은 1692년 정시한이 살고 있는 原州로 찾아가 질정을 구하고 사후에는 만사¹²⁵⁾을 짓고, 또 손자 丁思愼의 묘지명도 찬술하였다. 이익도 정시한을 사숙하며 정선생의 문하에 배워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하였다.¹²⁶⁾ 영남남인 계열의 학인들에게 공이란 칭호를 쓴 것에서 식산이 근기 남인계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¹²⁷⁾

허목의 학맥은 원주 남인계의 정시한·柳馨遠¹²⁸⁾을 통해 李枳(1659~

之敦篤謹厚, 皆余所欲學而未能者也. 平日四公往復書疏頗富, 而兒輩藏之不謹, 搜諸亂軸, 存若干幅, 天不慙遺, 四公者皆作古人, 而余以小生, 今亦老矣.”

- 123) 원주에 거주한 南人八大家은 김충열, 『남명조식의 학문과 선비정신』, 예문서원, 2006, 21~22면, “觀雪 許厚, 慕堂 洪麟祥, 久菴 韓百謙, 四寒 金昌一, 東溟 金世濂, 坡谷 李誠中의 둘째 아들, 耘谷 元天錫의 자손, 愚潭 丁時翰.”에 보인다.
- 124) 丁若鏞, 『與猶堂全書』一集, 『詩文集』 卷17(『文叢』 281책), 「旁親遺事」, 368쪽 d~369a면, “愚潭先生學術之正, 議論之公. (….) 其論理氣四七之辨, 一以紫陽退溪爲準則. (….) 蓋自寒岡旅軒而降, 眞儒醇學, 唯先生一人而已.”; 『愚潭集』 卷12(『文叢』 126책), 「墓碣銘[李灑 撰], 437쪽 a면, “遊談之士, 論世之學術醇而正, 表與裏相符, 言與行相顧, 莫不曰: 丁先生.”
- 125) 『息山集』 卷12, 장4b~6b면, 「愚潭尋訪錄 은 1692년 원주에 丁時翰을 방문한 기록이고, 『愚潭集』 卷12(『文叢』 126책), 「輓詞 [門下生 李萬敷], 420쪽 d면, “殄瘁那堪後死恫, 少微星晦海天東, 華門求志器器樂, 楓陛封章斷斷衷. 黃卷聖賢千載上, 靑丘山水一壺中, 名塗隨處爭濡首, 今世完人獨有公.”
- 126) 『愚潭集』 卷12(『文叢』 126책), 「墓碣銘」, 437쪽 a면, “灑少而無所知識, 不能叩篋從師於并世丁先生之門, 爲平生懊恨.”
- 127) 李萬敷 사후에 『行狀』은 李灑이 짓고, 墓碣銘은 丁時翰의 현손 丁範祖가 撰述한 것에서 그의 학통이 근기남인에 親密했음을 알 수 있다. 『息山集附錄(上)』, 「墓誌[李敬儒 撰], 장21b면, “先輩, 如愚潭先生, 及南嶽大老, 嘗敬重之.”
- 128) 柳馨遠(1622~1673)의 부친 柳愼은 이만부의 5대조 李澍의 외증손이며, 李志完의 딸과 혼인하여 貞陵洞에서 그를 낳았다. 그러므로 유형원은 伯舅인 太湖 李元鎮(1594~1665)과 고모부인 金世濂에게 수학하였다. 1666년에 『東溟集』 서문을 허목에게 청하면서 허목과 중유하게 된다. 허목은 유형원의 博精한 학식에 대하여 ‘王佐才’가 있다고 칭찬하였다. 『磻溪先生年譜』(『磻溪雜藁』, 여강출판사, 1990), 293~302

1729)¹²⁹ · 이현일 · 權斗寅(1643~1719) · 權斗經(1654~1725) · 盧思聖 · 申弼貞(1656~1729 · 이만부¹³⁰) 등에게 전해지고, 다시 이익 · 李仁復(1683~1730) · 權萬 등에게로 전하였는데, 이들의 문집 속에 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식산집』에는 四公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실려 있고, 『雜著』에는 그들을 방문하여 토론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¹³¹⁾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안동지역은 김성일에 연원을 두고 있는 갈암계 학인들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김성일의 문인 張興孝(1564~1633)¹³²⁾의 외손으로 경학과 성리학에 밝은 이현일은 유성룡의 손자 유천지와 함께 식산의 조부 이관징에 의해 조정에 천거된¹³³⁾ 영남좌도의 대표

면 참조

- 129) 李栻의 자는 敬叔, 호는 畏菴, 본관은 延安으로 丁時翰의 수제자로 李灝과 학문적으로 논쟁을 하였다. 『息山續集』 卷2, 答洪叙一(相朝), 장35a면, “李翊衛(李栻)在旅館不遠, 此老甚博且正, 當爲後生之模楷, 時時進見, 聽其言, 豈不有益.”
- 130) 『息山集』 卷12, 「愚潭尋訪錄」, 장4b~6b면; 『息山續集』 卷1, 「答李子新」, 장40b~42a면; 『息山集』 卷7, 「答吳致重」, 장19b~21b면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丁時翰·李栻·李萬敷·吳致重·李灝 등이 서로 학문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愚潭集』 卷12(『文叢』 128책), 「輓詞門下生 李萬敷」, 420쪽 d면, “黃卷聖賢千載上, 靑丘山水一壺中, 名塗隨處爭濡首, 今世完人獨有公.”라고 하여, 정시한을 ‘完人’으로 평하고 있다.
- 131) 『息山集』 卷12, 「豐山尋訪錄」, 장6b~8a면은 1697년 풍산에 李惟樟을 방문한 기록이고, 卷12, 장8a~10b면, 「記錦水講問」은 1703년 안동 錦陽에 李玄逸을 방문한 기록이고, 卷12, 장11b~15a면, 「鶴城問答」은 1723년 鶴城에 李澈를 조문하면서 李灝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현일은 유형원의 친구 裴尙瑜(1622~1686)를 통해 『반계수록』과 『반계유집』을 얻어 깊이 탐구하여 政治에 반영하였다. 1690년 배상유의 사위 柳暉의 부탁을 받고, 「遁庵柳公(樞溪)隨錄序」(『葛庵集』 卷20)를 지었다. 그리고 1688년 8월에 영남남인학자로 서인의 학설을 비판한 「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葛庵集』 卷18)을 완성하였다. 정시한은 1696년 7월, 「四七辨證」을 지었고, 1701년 이현일의 四七辨에 답하면서 이이의 이기설을 비판하고 이황의 이기설을 옹호하였다.
- 132) 張興孝의 무남독녀인 貞夫人 安東張氏(1598~1681, 83)는 학식과 음식솜씨가 뛰어났다. 19세에 李時明(1590~1674)의 둘째부인으로 출가하여 6남 2녀를 낳아 모두 훌륭한 학자로 길렀다. 『葛庵集』 卷25(『文叢』 128책), 「贈吏曹判書李公夫人張氏壙誌」, 285쪽b~285d면, 참조.
- 133) 『息山續集』 卷6, 祖考致政府君墓誌, 장26a면, “公抑躁進僥倖, 一以揀屈導滯爲

적인 사립이다. 1689년 이현일이 眼疾에 걸렸을 때 이관징은 사행시 중국에서 구입한 眼鏡¹³⁴⁾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식산은 이현일이 1694년 북방 鍾城으로 귀양 갔을 때 편지를 보내 자신이 1680년 경신환국 때 아버지를 따라 북쪽 변방에 살았던 경험과 『周易·困卦』 大象의 ‘致命遂志’를 인용하여 불우함을 위로하고, 또 聖學을 추구하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¹³⁵⁾

식산은 1702년 「萬東祠議」¹³⁶⁾라는 글을 짓는다. 그것은 서인계 산림세력이 송시열의 유명을 받들고 화양동에 만동묘 건립을 논의하는 사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다. 또 權尙夏(1641~1721)의 제자 成晚徵(1659~1711)과 서한 논쟁¹³⁷⁾을 통하여 예법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 그의 아들 成爾鴻과도 논쟁하였다. 그리고 1703년 귀양지에서 안동부 錦陽¹³⁸⁾

務, 如李持平碩寬, 柳掌令千之, 李尙書玄逸, 皆公所薦注也.”; 『葛庵集』 卷8(『文叢』 127쪽), 答李奉朝賀觀微 乙亥(1695), 522쪽 d면, “且此土人士感門下, 舊日字惠之恩, 以玄逸嘗受知於門下, 所以見待之厚.”

134) 『葛庵集』 卷8(『文叢』 127쪽), 「答李三宰觀微, 己巳(1689), 522쪽 c면, “玄逸一疾沈綿, 尙稽趨謝, 負罪實深. 送下眼鏡, 一掛昏眸, 頓還舊觀, 所謂賜之以既盲之視.”; 『密菴集』 卷13(『文叢』 173쪽), 「眼鏡記」, 260쪽 b면, “先君子, 昔在京邸, 苦眼花眩甚, 芹谷致政公, 歸以唐眼鏡一部, 卽世所謂六十鏡也.”

135) 『息山集』 卷4, 答南嶽, 장1b~2b면, “王考以一疾, 竟捐館舍. (….) 愚也少而羸病失學, 及長, 流離南北, 奔走道路, 仍以自廢. 今執事作塞上遷客, 而致命遂志, 安土敦仁, 身雖否, 而道益亨矣. 蓋博約敬義之說, 讀書之法, 皆聖賢所已詳言而教人者, 誠聖學之要旨, 學者之所務也.”

136) 『息山全書』 二, 『息山集補遺』, 「萬東祠議」, 驪江出版社, 1992년, 269쪽a~271d면 참조. 「附答客問 (271쪽d~273b면)은 秋潭 成晚徵과 萬東廟에 대하여 논쟁한 내용이다.

137) 『息山集』 卷12, 「露陰山房錄」, 장24b~25a면, “成仲舉(爾鴻)曰, 先人(成晚徵)嘗言, 公非斥萬東祠, 爲之慨歎, 萬東祠, 果無義乎? 曰老杜南池詩曰, ‘南有漢王祠, 終朝走巫祝, 歌舞散靈衣, 荒哉舊風俗, 高皇亦明王, 魂魄猶正直, 不應空坡上, 縹緲親酒食.’ 漢王, 卽漢高也, 南池, 在閬州, 屬漢中, 故池上有漢高廟, 漢高曾爲漢中王, 祀其土無異, 而工部譏之. 今萬東祠設於海外萬里, 吾恐神皇在天之靈, 不肯親酒食也.”

138) 錦陽 : 안동시 임하면 금소동의 고향이다. 이현일은 74세 때인 1700년 10월에 아버지 李時明(1590~1674)의 묘소가 있는 錦陽에 터를 잡고 강학하였다. 『葛庵全集』 2

으로 돌아온 이현일을 예방하여 ‘天道有敬說’¹³⁹⁾에 대하여 토론하고 許與를 받는다. 또 화양동에 건립하는 만동묘의 건립의 부당성¹⁴⁰⁾을 상의하고 돌아온다. 1704년 이현일은 식산의 시문집인 『陋巷錄』에 대하여 ‘神會天出’·‘三復詠歎’과 같은 훌륭한 시문비평¹⁴¹⁾을 가하여 답변하였다.

책, 裴宗鎬 編『退溪學派諸賢集』3, 驪江出版社, 1986)에 『錦陽及門錄』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錦陽講道址와 錦陽遺墟碑가 경북기념물 제116호이다.

- 139) 『息山集』卷12, 記錦水講問, 장8a~10a면, “柔兆閏茂(丙戌 1706은 昭陽協洽 癸未 1703의 오기- 인용자 주), 謁南嶽于花山錦水之陽, 語及天人之理, 仍問在洛時與吾黨, 偶論誠敬之說. 公曰, 何也. 曰, 無他, 誠敬不可相離故也. 曰, 第詳言之, 曰, 天人一理, 而聖人, 人而天者也, 自堯欽以下, 羣聖人無有不敬, 愚意以爲與天無異. 蓋敬所以爲誠, 而誠無不敬, 豈聖人之誠, 獨有敬, 而天道之誠, 反無敬乎? 若謂天道無敬, 是有無敬之誠, 而羣聖人之敬者, 爲有不似天處, 豈聖人體天之意乎? 雖無前人之明言的論, 然以理測之, 庶可默識於吾心體驗中矣. 蓋當初彼以誠, 爲自然底道理, 而只屬於天, 以敬爲強作底物事, 而只屬於人, 以判天人分誠敬, 故爲明誠敬相資之意, 而其言及於天道, 初非因程子說而爲之主張也. 程子曰, 天地設位, 而易行于其中, 只是敬. 公筭以爲因是說而爲言云云, 然今以筭中所引朱子說觀之, 或問程子曰云云, 如何. 朱子曰, 易是自然底造化, 聖人只說造化流行, 不敬便間斷了, 前輩引經文, 多是借來說己意云云. 公筭又引此說以明之, 蓋程子因經中存存之語, 推作學者敬之張本, 非直解本文之義者. 故朱子特說破其引經變例之意而已. 初非以誠敬, 分別於天人而爲言也, 朱子又嘗論程子此說曰, 天地也, 似有箇主宰, 方是恁地變易, 便是天地底敬天理, 只是直上去, 更無四邊滲漏, 便無走作, 以此說觀之, 或若復問天道之於敬如何云爾, 則未知朱子所答竟如何也. 公曰, 所論甚善矣.”
- 140) 『息山集』卷4, 「答南嶽」, 장5a~b면, “又有一事謹稟, 近者湖西, 有一宰相, 與其徒相聚立廟宇, 以二籩二豆, 享皇明神宗皇帝, 又以其師陪食, 想亦已聞之耶? 此間有參其議而歸者, 問其所據. 答云, 燕有昭王廟, 蜀有昭烈廟, 此其前事也. 又引退溪先生, 答龜巖論雞林建祠事證之, 昭王之於燕, 昭烈之於蜀, 曾是主土之君, 與此大不同, 至於退溪說, 則摘其中一二句爲口實, 詳其全篇語意, 則亦牽強文飾. 更考禮典及古事, 未得明據, 未知果如何也. 此至精至嚴處, 不可不講, 惟願以一言明教之耳.”
- 141) 李玄逸, 『葛庵別集』卷3(『文叢』128책), 「書息山處士李君仲舒, 遂志錄後」, 442쪽 c면, “上之二十九年癸未, 息山處士李君仲舒, 訪余於花山錦水之陽, 見示以其所著遂志錄(初名遂志, 後改以陋巷, 蓋公題跋, 在未改之前.)一編, 凡記文一, 四言詩十二, 五言詩八, 七言詩十五, 具道其山川流峙之勝, 館宇幽靚之致, 與夫朋友講習之好, 恬養本原之旨, 不惟詞致古雅, 音調瀏灑, 有若神會天出者然; 又其吟弄詠歸之趣, 潛思自得之妙, 尤有以助神觀而發深省者, 余既三復詠歎, 因書其後以歸之. 闕逢涖灘(甲申; 1704)正月初吉, 南岳老人.” 『息山別集』卷1, 「陋巷錄跋語(장9a~b면)라고 되어있다.

이현일 사후 자신이 성리설을 깊이 연구하여 前人之未發의自得說¹⁴²⁾인 천도유경설로 갈암계 학인들과 지속적으로 논쟁할 때,¹⁴³⁾ 이현일에게 인가받은 내용으로 대응하였다.¹⁴⁴⁾ 식산의 학문적 특징은 근기남인 허목과 정시한의 학맥을 계승한 이익과 정범조 등에 의해 행장과 묘갈명에서 천명하였고, 식산의 증손자 李敬儒도 「墓誌銘」에서 천도유경설이 식산 성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부각하고 있다.¹⁴⁵⁾

다음은 이현일의 아들 이재와 영해에 세거하던 조카 李櫟(1699~1734) 그리고 權以鎭(1668~1734)¹⁴⁶⁾·김성탁 등과 교유한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만은 이현일의 동생 李隆逸(1636~1698)의 아들로 학행으로 조정에 추천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식사의 「哀辭」를 지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고 고인의 爲己之學에 뜻을 두어 讀書求志한 선비라고 식산의 학문과 덕행을 높이 평하고 일찍이 흠모하며 배우기를 원했다¹⁴⁷⁾고 술회하고 있다.

- 142) 『息山續集』卷10, 장34a면, 「息山集跋 [李敬儒 撰]」, “其學以敬爲主, 嘗曰, 天道有敬, 與南嶽辨難, 南嶽初不以爲是也, 末乃悟曰, 果是也. 此先生之所自得, 而發前人之未發者也.”
- 143) 『息山集』卷5, 「答喚惺(權甲萬)丈」, 장9a~b면, “卽今尊所深惡而力斥者, 天道之敬一歟也. 蓋天道有敬, 古人無明言者. 又今人以敬, 爲強迫作爲之事, 故習熟見聞, 不欲以作爲之事, 歸之於天道自然之中, 尊意亦豈不然乎? (….) 今言敬之實, 則惟主一.”
- 144) 『息山集』卷6, 「答中文甫(申濬)別紙」, 장45a~b면, “天道有敬之說, 曾與一朋友爭論, 終未歸一, 當時自朝廷至士友間, 聞者笑斥愚見, 至如南嶽公 著說非之. 然執偏之性, 終不能轉得, 其後南嶽歸錦水, 後往拜, 言及此略有云云. 南嶽以鄙說爲是, 自言覺前日之未透云云.”
- 145) 『息山集附錄(上)』, 「墓誌李敬儒 撰」, 장21a~b면, “嘗曰, 天道有敬; 南嶽先輩聞之, 不以爲是. 先生曰, 天之道誠, 而誠無不敬, 天之道一, 而主一之謂敬, 天道固未嘗無敬. 聖人天也, 聖學主敬, 天道無敬, 則是聖人與天道有不相似處. 南嶽始服其言, 此皆先生之所自得, 而發前人之未發者也.” 權泰乙(1996), 108~111면 참조.
- 146) 權以鎭의 본관은 安東, 자는 子定, 호는 有懷堂이고, 저서에 『有懷堂集』 10卷이 있다. 충남 공주출신으로 증조부는 晚悔 權得己(1570~1622), 조부는 炭翁 權認(1604~1672), 아버지는 현감 權惟이며, 외조부는 宋時烈이고, 尹拯의 문인이다.
- 147) 『息山集附錄(下)』, 「哀辭李櫟 撰」, 장12b면, “始余僻居東海之濱, 聞商山有寓士曰,

이재는 18세기 퇴계학의 계승자로 학통을 외손 李象靖(1711~1781)에게 전했다. 또 그는 『蒼狗客日』 1694년 6월, ‘10일 병오. 참관 李沃과 그 아들 李萬敷가 연이어 왔다. 이만부는 이 道學에 뜻을 두고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중유한 사람이다.’¹⁴⁸⁾라고 기록하여 식산과 이현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식산은 이재가 이현일의 귀양지를 따라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자신이 예전 이옥의 유배지를 따라 북쪽과 남쪽에 떠돌아다니던 상황과 비슷하다¹⁴⁹⁾고 위로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중앙정계에 축출된 남인들이 시련을 함께 공유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다.

처음에 이재와 申弼貞(1656~1729)은 식산을 무척 아꼈었다.¹⁵⁰⁾ 그러나 이재는 이황의 성리학을 수호하기 위하여, 李珥(1536~1584)의 이기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조목조목 비판한 이현일과 정시한의 이기설을 계승한 영남남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배타적인 태도로 이황의 이기설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성리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절충적으로 이해하려는 식산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식산은 1708년 수 십 년간 80여종의 문헌에서 조선 학자들의 성리설을 수집하고 그것을 10개 門目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 항목 나누어 『道東篇

號息山先生者, 其大父太宰, 父小宰, 位望文獻爲世用仰, 而先生爲其子若孫, 文與行不失其世守. 又有志古人爲己之學, 其才可以捷場屋, 不屑就, 家業本富樂, 棄而遠, 以嶠南先輩遺風在, 往家焉. 布衣蔬食, 一室翛然, 恬靜淡薄, 不萌進就之念, 獨以讀書求志藝焉, 無一點綺紈習氣, 余常有願見之心.” 이 글은 李穰의 『顧齋集』 卷8, 「李息山仲舒叙述」(장14b~16a면)이라고 되어 있다.

148) 李栽, 『密庵全集』 下(『蒼狗客日』上, 여강출판사, 1986), 103쪽 c면, “(甲戌六月) 十日 丙午. 李參判沃及其子萬敷, 相繼至. 萬敷有志此學, 嘗從大人遊者也.”

149) 『息山集』 卷5, 「與李幼材(李栽)」, 장15b면, “少弟昔歲隨家尊, 北謫南遷, 正如兄今日情境, 吾身落拓撼頓, 所當任之.”

150) 『息山續集』 卷3, 「答金振伯(聖鐸)」, 장50a면, “洛下少日朋友, 凋落已盡; 南來後李幼材·申元伯二公者, 愛我特厚.” 본문에 나오는 幼材는 李栽의 字이다. 元伯은 申弼貞의 字이고 호는 病翁으로, 申厚錫의 아들이며 丁時翰과 교류하였다. 科擧에 뜻을 두지 않고 聞慶縣에 은거하여 易學과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여 학문이 높았다. 그러므로 1729년 吳光運(1689~1745)에 의해 遺逸로 조정에 추천 되었다. 저서에 『訓蒙易義』 11卷(『平山申氏文集』 제3집, 1983, 349~550쪽)이 전한다.

』으로 편찬하였다. 이제는 1709년 5월 상주에 우거하고 있는 셋째 아들 李寅煥(1686~1732)을 찾아와 梅湖 가에서 식산과 해후한다. 식산은 이현일에게 천도유경설을 질정 받았고, 이제는 식산의 박학에 대하여 평소부터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⁵¹⁾ 그러나 『도동편』에 실려 있는 이이의 주기론적 氣發理乘一途說이 이황의 理氣互發說과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요구하였다.¹⁵²⁾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안동으로 돌아와 이현일의 문인이 된 계부 이협을 중간에 넣어 재차 삭제하기를 慫慂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식산은 『도동편』은 자신의 독자적인 저술이 아니라 선현의 학설을 편집하여 공부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이기설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공평무사한 학문적 입장을 편지로 표출하였다.¹⁵³⁾

안동부사로 부임한 권이진과의 논쟁에서도 식산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

151) 李裁, 『密菴集』 卷10(『文叢』 173책), 『錦水記聞』, 204쪽 a면, “李處士萬敷仲舒, 以綺紈子弟, 不屑學業, 留意此事. 嘗從我先人質疑請益, 先君子亦嘉其趣尚不凡. 落南十年, 聞其業益專, 久欲一叩其緒論, 未暇也. (….) 余謝曰, 子之業, 信博矣, 不佞何足以知之.”

152) 『密菴集』 卷10(『文叢』 173책), 『錦水記聞』, 207쪽 b면, “收拾散佚, 彙分類集, 釐爲十數卷, 名之曰『道東編』. (….) 且如四端七情辨, 老先生灼見理氣之原, 說出互發之論, 四亭八當, 損撲不破, 而栗谷直斥以義理不明, 子之所取舍何居. 仲舒曰: 是則不妨兩存, 故並編之耳. 余曰: 何哉. 子所謂兩存者, 豈以彼亦是, 此亦是邪. 仲舒曰: 後學固當尊信老先生說, 然栗谷無互發之論, 亦何害爲一說邪. 余曰: 夫夫亦爲此言邪. 凡事無大小, 是則是, 非則非, 初無兩是之理, 況此道理源頭, 不可以毫釐差者乎?”

153) 『息山集』 卷5, 「答李幼材」, 장16b면, “敎以栗谷理氣說, 當盡黜之, 又東匡會宿, 又言之; 聞對舍叔, 又言之; 不一言二言而止.” 『息山續集』 卷2, 「答洪叙一」, 장35a~b면, “惟所編道東書, 并收栗谷理氣說, 密庵言, 其不可拔去爲宜云. 吾以爲此非我所自著, 只刪取古人言語. 後人見之, 仁者以爲仁, 知者以爲知, 何必與奪於其間乎? 以此士友間, 疑彼此之見不同, 大學士亦必聞此也.”; 『密菴集』 卷10(『文叢』 173책), 『錦水記聞』, 207쪽 b면, “余謝曰 (….) 老先生(李滉-인용자 주)灼見理氣之原, 說出互發之論, 四亭八當, 損撲不破, 而栗谷直斥以義理不明, 子之所取舍何居. 仲舒曰, 是則不妨兩存, 故並編之耳. 余曰, 何哉, 子所謂兩存者, 豈以彼亦是, 此亦是邪. 仲舒曰: 後學固當尊信老先生說, 然栗谷無互發之論, 亦何害爲一說邪.”

하였다.¹⁵⁴⁾ 식산은 주희와 이황의 이기설을 제시하며 이재의 이기설은 철두철미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기설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끝내 합일점을 도출하지 못하고,¹⁵⁵⁾ 이재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한다.¹⁵⁶⁾ 1730년 5월 이재는 식산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식산은 만사에서 ‘갈암의 道統이 그에게 전해졌으며 사대부로서 完名했다’¹⁵⁷⁾고 이재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두 학파간의 학문적 갈등은 끝내 치유되지 못한 것 같다.¹⁵⁸⁾

이현일과 이재의 부자에게서 배운 金聖鐸(1684~1747)은 1737년 이현일의 伸冤을 요구하다가 국문을 받고 제주도 旌義縣, 광양현 蟾津, 해남현 薪智島, 光陽 등에 귀양 갔던 강직한 선비였다. 식산은 從弟 李萬寧(1689~1729)의 소개¹⁵⁹⁾로 道義의 사경을 뗏었고,¹⁶⁰⁾ 1732년 안동 향교에서

-
- 154) 『息山集』 卷4, 「答權子定權以鎮」, 장14a면, “前聞李幼材獻之以理氣之說, 未知幼材所謂理者, 果何如.”
- 155) 『息山集』 卷5, 「答李幼材」, 장17b~18a면, “大抵心是活物, 合理氣統性情, 而知覺生焉. 四端, 心之覺於理分而出者也, 七情, 心之覺於氣分而出者也. 性之爲本則一, 而心之知覺不同, 情之目有四有七, 只以此也. (….) 故朱子所謂理之發氣之發, 亦似有此意思, 若曰, 理之所發, 氣之所發云爾, 老先生兩句下語, 則直謂理發氣發, 此與朱說似無異, 而細心玩味, 因一之字有無, 微似有意長意短之分; 彼至話以二本者, 實在此處, 寧不痛哉! 先生又嘗答李仲久書曰, 七情之發, 雖不可謂不由於性, 然與四端對舉而言, 則四端主於理而氣隨之, 七情主於氣而理乘之云云, 以此見之, 先生之意, 亦可槩知.”
- 156) 『密菴集』 卷5(『文叢』 173책), 「答李仲舒萬敷, 丙申」, 112쪽 c면, “今高明非我輩人, 然既蒙容其辨難, 則不敢不以所嘗折肱者進焉, 計不以下體棄葑菲也.”
- 157) 『密菴集 附錄』 卷25(『文叢』 173책), 輓詞(李萬敷 撰), 522쪽 b면, “詩書舊業傳衣鉢, 離亂完名動縉紳.”
- 158) 金鶴洙(1995), 108~110면 참조. 또 『道東篇』이 서에게 학파와 갈암계 학파에 모두 영향을 받은 鄭宗魯의 序文을 받고도 간행되지 못한 점도 이러한 갈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 159) 金聖鐸, 『霽山集』 卷8(『文叢』 206책), 「答李和國萬寧書 丙申」, 360쪽a~c면, “夫清涼, 東南絕勝地也. 而兄與息山丈, 并轡聯翩於祝融·芙蓉之間, 長嘯絕頂, 俯視烟火世界, 此又浮世絕勝遊也. (….) 遊山錄想必成, 且與息山唱和諸篇, 亦當不少, 勿靳錄示, 使塵土之襟, 一大愉快, 則尤爲故人之惠也.” 참조. 李萬寧의 자는 和國, 호는 松泉이며, 李萬敷의 계부 李浹의 아들이고 李萬容(1694~1772)의 형으로 안동에

『退陶先生言行通錄』을 함께 교정하며 만났다. 그의 아들 金樂行(1708~1766)도 이재에게 배워 이상정과 교유하며 갈암학파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식산 사후에 이재의 외손으로 갈암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李象靖(1711~1781)은 혈연과 지역성을 공유함으로써 영남지역의 학통을 재정립하여 南漢朝-柳致明¹⁶¹⁾-金興洛·李震相 등으로 퇴계학맥을 전승하였다. 그러나 식산의 학문을 계승한 노계원·조천경·오상원·권상일·이익¹⁶²⁾ 등은 크게 현달하지 못하거나 이현일 계열이나 정종로 계열로 흡수되어 미미하게 되었다. 근기남인인 이익은 허목 계열의 학맥을 계승하여 經世致用의 實學으로 발전시켜 면면히 이어갔다.

그러나 식산의 학문적 성과물은 뚜렷한 계승자가 나오지 않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필사본 형태로 집안에 보관되게 되어 특정인만 열람하였다.¹⁶³⁾ 또 목판으로 간행된 『식산집』 20책 38권은 巨帙이고 忌諱에 저촉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널리 유포되지 못하여 영남지역에서도 完帙을 구해보기 어려웠다.

식산은 이기설을 중시하여¹⁶⁴⁾ 오랜 기간 깊이 침잠하여 성리학에 정통하였고, 또 자신의 학설이 程朱나 이황의 학설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가

살면서 이만부에게 배웠다.

160) 『息山續集』 卷3, 「答金振伯聖鐸」, 장49a면, “萬數敬復, 振伯道契, 僕之知足下, 不但得於士友之頌.”

161) 李佑成(1982), 92~93면 참조.

162) 『息山集附錄(上)』, 「墓誌[李敬儒 撰]」, 장21b~22b면, “後進之士, 星湖李公瀾·清臺權公相一·竹厓吳公尙遠·豐原趙相國顯命諸先生, 皆尊慕之已甚.”

163) 『息山全書』에 실린 그의 학문적 저작물은 각주⁴⁵⁾ 및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5), 37~38면 참조.

164) 『息山集』 卷8, 答權台仲(相一)』, 장33a면, “至於理氣之辨, 萬事根本, 而學問頭腦, 此處誤 則無處不誤, 大可懼也.”라고 하였고, 식산에게 영향을 준 李渠·丁時翰·李玄逸 등도 이기설에 율곡의 학설과 대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퇴계의 학설을 중시하였다. 『立齋集』 卷43(『文叢』 254책), 「山陽處士活齋先生李(渠)公行狀」, 233쪽 b면, “常曰, 理氣者, 性命大本原, 學問大頭腦也.”; 丁時翰, 『愚潭集』 卷7(『文叢』 126책), 「四七辨證」, 317쪽 a면, “夫理氣之論, 卽義理大頭腦處.”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근기지역에서 육경고문과 박학정신을 배운 식산과 영남지역에서 주자서와 퇴계학 위주의 성리학을 익힌 영남남인들과 학문적 이질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현일의 제자이며 퇴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두경은 안동부사 권이진에게 편지를 보내 식산과 이재가 논변하고 思繹한 이기설은 적지 않는 도움이 된다¹⁶⁵⁾고 권유하였다.

다음은 『퇴도선생언행통록』을 교정하며 식산과 교유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퇴도선생언행통록』을 처음 계획한 사람은 이현일이고,¹⁶⁶⁾ 권두경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 초고를 만들어 이재에게 보내 교정을 요구한다. 이재는 교정한 부분과 보완 사항은 첨지로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하여 초고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문과 발문을 지어 간행할 준비를 마쳤으나 출간하지 못하고 몰하였다. 그 뒤 허목의 제자인 이협과 이만부가 조현명의 권유¹⁶⁷⁾로 안동지역 갈암계 학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예안사람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안동향교에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교정하여 1732년 孟秋에 간행한다.¹⁶⁸⁾ 그러므로 이 책은 영남남인과 근기남인 그

-
- 165) 權斗經, 『蒼雪齋集』 卷9『文叢』 169쪽, 「與權子定以鎮」, 168쪽d~169a면, “執事四端亦氣發之說, 固自有定論. 然幸試取陶山反復之論, 虛心細玩, 猶有未盡信及者, 更從李幼材(栽)求見其父子間, 與申明仲(益愷), 李仲舒(萬敷)論辨者而思繹焉. 或不無少裨於多聞擇善之道, 如何如何.”
- 166) 李玄逸, 『葛庵集附錄』 卷1『文叢』 128쪽, 『年譜』, 536쪽 c면, “二十九年癸未(1703)先生七十七歲, 七月, 定退陶先生言行通錄篇目, 先生嘗以老先生一言一動, 爲後學師範, 而門人記載散出, 學者病未能遍觀. 遂就鶴峯金先生所記陶山言行錄, 及李良齋記善錄, 鄭文峯筆錄, 金雪月堂劄記等書, 將欲節約編摩爲一書, 篇目既定, 而書未及成.”
- 167) 『息山續集』 卷4, 「與趙時晦」, 장31b~32a면, “退溪言行通錄刊役已始, 此乃台右文中一事甚盛, 幸甚幸甚, 江左聞士, 莫不來會, 參聽其緒餘, 亦索居人不易得者, 但通錄最下附以年譜, 區區竊謂年譜刊行已久, 更刊于此, 無關補漏之益, 而徒費功役之繁. 諸議以爲故權修撰斗經, 與故李主簿栽, 消詳取錄者, 先生後孫李參奉守淵, 嘗以此質之, 則李主簿答云, 先生所編理學通錄, 首取朱子行狀, 而不拘其重複, 豈不可爲例乎? 區區又謂此錄比則與程門之遺書外書, 朱門之語類類也, 與伊洛淵源理學等錄, 規模不同, 況雖用其例, 上既收入月川所作總錄, 又何必重刊年譜也.”

리고 소론 탕평파의 합작품으로 여겨진다.

식산은 이현일의 충실한 제자인 이만과 김성탁에게 편지를 보내 『퇴도 선생언행통록』은 『程氏遺書』와 『河南程氏外書』 그리고 『朱子語類』에 견줄만한 훌륭한 저술이라고 평하고, 이 책을 처음 준비한 권두경과 이재가 이미 고인이 되어 슬프다¹⁶⁹⁾고 감정을 슬회하고 있다. 간행에 총괄책임을 맡은 이협의 「後識」¹⁷⁰⁾는 식산의 「書退陶先生言行通錄後」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퇴계선생언행통록』은 예안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이황의 후손 李守淵이 도산서원 원장인 권상일의 후원을 받아 1733년에 다시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¹⁷¹⁾ 이 문제는 무신란 이후 안동과 예안사람의 미세한 변화로, 당시 정치 상황과 비교하여 섬세하게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논의를 그친다.¹⁷²⁾

위에 든 사람 이외에도 식산이 교유한 안동권 학인은 다양하다. 허목과 이현일의 영향을 받고 봉화현 酉谷에 세거하던 권두경,¹⁷³⁾ 예천에 살며

- 168) 『息山續集』 卷5, 「書退陶先生言行通錄後」, 장38a~b면, “右退陶先生言行通錄者, 卽故蒼雪權學士斗經, 哀集門人所記, 以分門編摩, 如朱門語類之爲者也, 其書藏於權氏, 不克傳於世, 爲斯文曠典者久矣. 上之九年辛亥, 豐壤趙公顯命, 出按嶺閩. 訪家叔東厓公于寓舍, 語及是書, 則公驚曰, 是爲吾東之『論語』, 何可私於一家而已. 遂助以財力, 付之剞劂, 而仍要東厓公, 管攝其事. 於是, 花山之有文學賢達之士, 大會于鸞堂, 更加讐校消詳, 以壬子仲夏始事, 越三月孟秋, 功告訖焉.”
- 169) 『息山續集』 卷3, 「與李君直(稹)·金振伯(聖鐸)」, 장51a~52b면, “僕於其時, 晚忝末席, 病未究竟卒業, 而此是蒼, 密二公所講定鋪置者. (….) 今通錄一書, 方之於古, 則與程門之遺書, 外書, 朱門之語類類者也. (….) 我東刊景賢錄也, 退陶南冥, 俱有所傳錄, 惟恐率略, 而至於寒岡, 又爲之續補. 由是觀之, 此書不可謂無遺恨, 而蒼, 密二公, 已作古人, 撫卷愴悵, 實有難作之感也.”
- 170) 『增補退溪全書』 4, 『退陶先生言行通錄』 卷8, 「言行通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784쪽a~b면 참조.
- 171) 『淸臺全集』 上(『淸臺年譜』 卷1, 여강출판사, 1989), 317쪽d~318a면, “八年壬子(1732). (….) 秋以陶山洞主謁院廟, 與院儒論言行錄凡例. 九年癸丑(1733). (….) 校正退溪言行錄.”
- 172) 全炳哲(1996), 67~78쪽에 權斗經의 아들 權曄의 『琅玕軒集』에 나오는 「言行通錄入梓首末」을 분석하여 안동유림과 예안유림의 갈등양상을 일부분 언급하였다.
- 173) 『蒼雪齋集』 卷2(『文叢』 169책), 「西湖李處士仲舒萬數將適嶺南, 走筆贈之」, 39쪽 a

‘작은 퇴계[小退溪]¹⁷⁴⁾라는 칭송을 받은 李東標(1644~1700),¹⁷⁵⁾ 식산의 둘째 부인과 인척관계가 있으며 풍산에 세거하던 權槩(1672~1749),¹⁷⁶⁾ 영양에 살며 김성탁과 함께 스승 이현일의 신원을 위해 일생을 바친 趙德隣(1658~1737), 乃城縣에 살며 권두경과 權斗寅(1643~1719)에게 배워 문장과 行誼가 嶺南第一이라 칭송받았던 李光庭(1674~1756)¹⁷⁷⁾ 등도 식산과 교유를 했지만 남은 자료가 부족하므로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5. 江右地域 南冥系 學人과 交遊

식산은 1703년 「만동사의」를 지은 이후 노론 湖論系 권상하 제자들과 갈등이 심해지고,¹⁷⁸⁾ 1708년 『도동편』을 저술한 이후 갈암계 학인들과 학

면, “西湖處士人如玉, 非聖之書口不讀, 我昔一見消鄙俗, 瓊枝皎皎奪人目. (….) 男兒當作冲天鵠, 安能鳧鴈謀口腹.”

- 174) 李東標, 『懶隱集』 卷8, 「神道碑銘并序(蔡濟恭 撰)」, 新興印刷所, 1991, 463~470면, “世之數明陵人物, 至懶隱李公, 一辭言曰, 名臣名臣, 不謀而萬口協. (….) 朝之出餞者, 相顧嘖嘖曰, 今之小退溪也.” 신호열, 김명호 옮김, 『국역 연암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4, 294면 참조 그는 이항의 삼촌 松齋 李堦의 6대손으로 李惟樟과 洪汝河에게 배우고 權斗寅(1644~1719)과 함께 조정에 출사하여 영남선비의 정신을 조정에 드러낸 名臣이다.
- 175) 『懶隱集』 卷4, 答李仲舒萬敷, 新興印刷所, 1991, 223~224면 참조
- 176) 權槩의 자는 方叔, 호 屏谷, 본관 安東이며, 어머니는 拙齋 柳元之의 딸이고, 妻는 李玄逸의 孫女이다. 『한국문집총간』 188책에 실린 『屏谷集』은 원집 10권, 속집 4권 합 7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권7에 실려 있는 『戊申錄』과 『關幽錄』은 18세기 역사적 사실을 잘 반영한 사실주의 문학으로 평가 된다. 이종호(2004), 267~311면 참조
- 177) 李光庭, 『訥隱集』 卷22『文叢』 187책, 行狀(李象靖 撰), 545쪽 c면, “乙卯(1735), 豐原君趙顯命入對, 盛稱公文學行誼, 爲山南第一, 上曰, 南國是我朝鄒魯, 既是南州第一人, 可謂當今第一人也.”; 또 『訥隱集』 卷21에 실려 있는 『亡羊錄』은 21편으로 구성된 寓言으로 18세기 한문소설사에서 주목해야할 작품이다. 金泳(1993), 61~68면 참조
- 178) 宋近洙, 『宋子大全隨笥』 卷13『文叢』 116책, 『目錄』, 500쪽 a면, “李沃, 延安人, 字文若, 判書觀徵之子. 顯廟朝科, 歷史郎, 舍人, 副學, 至吏(禮)判, 有文名. 始頗敬慕

문적으로 대립하여 강좌지역으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전염병으로 자식을 잃고 1717년 둘째 부인 풍산유씨와 유성룡의 주손인 柳後常의 喪을 당하게 되어 식산의 의지치가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1721년 늦봄 58세의 쇠약한 몸으로 20여년 살던 제2의 고향 상주를 떠나 금릉 섬봉에 우거하게 된다.¹⁷⁹⁾ 그 곳에 2년간 머무르면서 서신으로 교류했던 남명계 학인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식산은 생애의 절반을 서울에서 보내며 수학했기 때문에 허목과 조경 등을 통해 吳健(1521~1574)·정구·崔永慶(1529~1590)·文緯(1555~1632)·장현광·鄭蘊·河弘度(1593~1666) 등과 같은 남명계 학인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우지역 남명계 학인에 대한 식산의 인식은 허목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① 남명 같은 분은 능히 정대한 언론과 고아한 행실로 굳은 지조를 지켜 돌아봄이 없으며, 천자의 지존함에도 굽히지 않고, 부귀를 뜯구름같이 보며, 한 시대를 가버어 여기고 前古를 오만하게 본다. 그 취하고 높이는 것은 ‘가을 서리나 작열하는 햇별이요, 만 길의 높이로 우뚝하다.[秋霜烈日, 壁立萬仞]’의 8글자에 있으니, 그 뜻은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학문을 논하면 한번 전하여 鄭仁弘을 얻었다. 남명의 말씨는 이러한 곳에 이른다. 그러나 남명은 옛날의 이른바 고사이니, 만약 그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나도 역시 만나서 그 사람됨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겠지만, 나로서는 더불어 벗하지는 않겠다.¹⁸⁰⁾

先生, 有二度上書, 極其尊尙. 寅卯(1674, 1675)後附鏞·穆, 屢發論啓, 上以反覆可惡, 特命遠配. 子萬敷, 有文集, 醜辱先生, 尤無不至.” “有文集, 醜辱先生.”이란 말은 권상하가 1703년 괴산군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워 神宗과 毅宗皇帝 그리고 宋時烈을 함께 배향하려 할 때 식산이 「萬東祠議」를 지어 非禮라고 성토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息山集』에는 그 글이 忌諱에 저촉된 내용이라 실리지 못하고, 별도로 『息山集補遺』로 간행한 것이 『息山全書』 2, 269~271쪽에 실려 있다.

179) 『息山別集』 卷1, 遷寓對, 장41b면, “李子居商山, 既二十有餘年, 將遷于金陵之蟾峰, 上之元年辛丑(1721)季春也.”

180) 『記言別集』 卷6(『文叢』 99책), 「答學者」, 25쪽a~25c면, “如南冥者, 能大言高行, 特

② 子新(李瀾)이 묻기를, “영남이 본래 禮鄕으로 칭송 받았는데 선배의 유풍이 지금 증명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답하기를, “상도는 풍속이 謙下하고 하도는 풍속이 激峻한데 이는 先輩(退溪·南冥)의 영향인 듯하다. 작금의 상태로 말하면 겸하는 세속화 되어 頽靡한 쪽으로 변질되었고 격준은 과도하여 凌躡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전자는 공손하나 예절이 없는[恭而無禮]¹⁸¹⁾ 것이고, 후자는 용맹하나 예절이 없는[勇而無禮]¹⁸²⁾ 것이다.”라고 하였다. 子新이 말하기를, “공손의 폐단은 적고 만용의 폐단은 더욱 크다. 그러나 더불어 진취하려고 하면 勇而弊者가 때로는 恭而弊者 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하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다.¹⁸³⁾

③ 退溪가 태백산과 소백산 밑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유학자의 종장이 되었다. 그 계통을 받은 학인들은 깊이가 있으며 빛을 발하여 예의가 있고 겸손하며 문학이 찬란하여 洙泗의 유풍을 방불케 하였다. 南冥은 지리산 밑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기개와 절조의 최고가 되었다. 그 후계자들은 정신이 강하고 실천에 용감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어 이익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위험이 닥쳐온다 하여 지조를 변하지 아니하여 독립적 지조를 가졌다. 이것은 영남 상도와 하도의 다른 학풍이다.¹⁸⁴⁾

立不顧，不屈於萬乘之尊，視富貴如浮雲，輕一世而傲前古。其所取向，專在於秋霜烈日，壁立萬仞八字，其志不爲不高。而論其學，則一傳而得仁弘。(……)南冥之末弊，至於如此，然南冥者，古之所謂高士，若其人在世，吾亦願見而一識其爲人也，然與之友則吾不爲也。”

- 181) 『論語』·「泰伯」,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憇.”
- 182) 『論語』·「陽貨」, “子貢曰: ‘君子亦有惡乎?’ 子曰: ‘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者.’”
- 183) 『息山集』 卷12, 「鶴城問答」, 장12b면, “子新仍問, 嶺南素以禮俗稱, 先輩遺風, 今有可徵者乎? 曰, 上游之俗謙下, 下道之風激峻, 先輩所以導之者然也. 以今言之, 謙下流而爲頽靡, 激峻過而爲凌躡, 所謂恭而無禮, 勇而無禮者也. 曰, 恭之弊猶小, 勇之弊尤大, 然與之進趣, 則勇而弊者, 有時勝乎? 曰, 然.”
- 184) 李瀾 著, 安鼎福 編, 『星湖僿說類選』 卷一下, 「天地篇下, 地理門」, 「白頭正幹」, “退溪生於大小白之下, 爲東方之儒宗; 其流深涵濃郁, 揖遜退讓, 文彩彪映, 有洙泗之風焉. 南冥生於頭流之下, 爲東方氣節之最; 其流苦心力行, 樂義輕生, 利不能屈, 害不能移, 有特立之操焉. 此嶺南上下道之有別也.”; 『星湖僿說』 卷1, 天地門, 「白

인용한 세 문장은 근기남인의 학문을 계승한 허목·이만부·이익의 말이다. 모두 편지나 사적인 대화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목은 조식과는 벗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식산은 좌도는 겸하하고 우도는 기절을 숭상한다며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였다. 이익은 진취적인 기상에 있어서는 강우지역 선비들이 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익은 식산 처럼 영남남인의 특징을 파악하여 두 학파를 절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익은 다른 글에서 ‘퇴계학파는 仁을 숭상하고 남명학파는 義를 주장한다’¹⁸⁵⁾고 파악 하였다.

식산은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강우지역 인사들의 실천적 학문성향을 58세 이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덕천서원 원장직을 수행하였다. 식산의 평소에 남명의 ‘敬義夾持’¹⁸⁶⁾ 정신을 존모했고, 또 강우지역에 있을 때 쓴 일기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¹⁸⁷⁾

식산은 1710년 문경 화음산 청화동에 거처할 때 진주에서 상주로 이주해 살던 진주하씨 河聖則·河大淵을 통해 남명학과 학인들과 서신으로 교류하게 된다. 그들을 통해 진주에 살던 河世應(1671~1727, 字는 應瑞, 號는 知命堂)·金聖運(1681~1730, 字 大集, 號 珠潭), 申命耆(1666~1742, 字는 國叟, 호는 南溪) 등과 교류할 수 있었다.¹⁸⁸⁾ 그리고 河弘度(1593~1666)의

頭正幹.]

- 185) 李瀾 著, 安鼎福 編, 『星湖僊說類選』 卷一下, 「天地篇下, 地理門」, 「東方人文」,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東, 皆嶺南之地. 上道尚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 文明之極矣.”
- 186) 敬義夾持는 『性理大全書』 卷70, 「敬義齋銘[眞德秀 撰]」, “大哉敬乎, 一心之坊, 至哉義乎, 萬事之綱; 敬義夾持, 不二不忒; 表裏洞然, 上達天德.”에서 유래한 말이다. 『南冥集』 卷1, 『文叢』 31책, 「佩劍銘」, 480쪽 a면, “內明者敬, 外斷者義.”; 李獻慶, 『良翁集』 卷17, 『文叢』 234책, 「日新堂李處士(天慶)墓碣銘」, 353쪽 d면, “南冥曹先生之學, 敬義夾持, 壁立千仞.”
- 187) 『息山全書』 三(여강출판사, 1993), 『息山先生讀書日記』, 503쪽, “辛丑(1721)九月十九日, 工夫莫要於敬義夾持也.”; 『息山集』 卷11, 「心鏡圖說」, 장14b면, “欲心之復明, 以敬義夾持之而已. 磨之磨之磨而不已, 鏡無時不明矣.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夾持, 無或少間, 心無時不明矣.”

중손 河大觀(1698~1776), 河德望(1664~1743)의 아들 河大明(1691~1761), 李台亨, 李蓋(655~1736), 朴泰茂(1677~1756), 權重道(1680~1722) 등과 교유하였다.

식산이 금릉의 섬봉에 우거할 때, 1721년 9월 김성운이 진주에서 식산을 찾아와 덕천서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 10월 17일 덕천서원에 원장 직¹⁸⁸⁾을 수락하면서 남명계의 학인들과 강학하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한다. 『식산집』에 실려 있는 강우지역 학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하세웅 9통, 김성운 5통, 신명구 2통, 하대연 7통, 李台亨 4통, 大覺書院士林 1통, 鼎山書院士林 1통 등 29통이다.

김성운은 大覺書院에 배향된 金大鳴(1536~1603)의 현손으로 식산의 문장에 왕세정의 기풍이 있다고 평하니, 식산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사양하였다.¹⁹⁰⁾ 덕천서원 주변 정사를 운영하면서 식산과 시문을 창수하거나 지리산과 진주지역 유적지를 유람하였다. 하세웅은 남명학 부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덕천서원과 대각서원을 증건하였다. 그의 아들 河必淸(1701~1758)은 식산 사후에 김성탁·김낙행·하서룡 등과 갈암계 학인들과 교유를 지속하였다. 신명구는 李栽·李萬敷·李光庭·權萬 등 영남좌도의 학인들과 다양하게 교유하였다.¹⁹¹⁾ 그는 초년에 이현일에게 수업을 받았고, 만년에 당질 申益愧(1672~1722)과 함께 仁同府 서쪽 若木里에서 강학하여 제자를 양성하였고, 덕천서원 원장도 하였다.

188) 權泰乙(2005), 369면 참조.

189) 『德川書院 院任錄 上』, 四면에 의하면 李萬敷는 1721년 10월 17일에 院長에 圈點하고, 25일 덕천서원으로 와서 謁廟하고, 河世龜와 權大一 등은 院任이 되었다.

190) 『息山集』 卷6, 「答金大集」, 장53b면, “蓋滄溟(李攀龍)子所爲, 本出於文人浮誇之意, 自白雪樓(李攀龍)時, 已非躬行君子之所必效. 况彼七人者, 乃天下文章巨擘, 又何能強取以充之. 必準其數也, 如陋拙, 平日未敢以辭翰鳴世自期, 而今乃攬引爲第一, 若欲與王元美(王世貞)爲對者然, 令人羞愧, 不覺面發赭. 以才則千不似萬不似, 以志則亦非所願, 何不諒耶.”

191) 申命壽, 『南溪集』 卷4, 家狀[申相殷 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同時之彦, 如李密庵·李息山·李訥隱·權江左諸先生, 蓋稱而交勉之.”

또 우도지역 학인과 교류하면서 청탁을 받아 많은 문자를 지었고, 강우지역을 유람하며 지은 산수유기 속에 강우지역 선현들의 유적을 기록하여 공정하게 평가 하려고 노력하였다. 식산이 강우지역 학인들에게 응수하여 찬술한 글은, 傳後文字,¹⁹²⁾ 문집 및 유문의 서발문,¹⁹³⁾ 강우지역 서원과 건물 의 文字,¹⁹⁴⁾ 이언적의 아들 李全仁과 조식의 학술적 문제를 분석한 글,¹⁹⁵⁾ 강우지역 산수유기¹⁹⁶⁾ 등이다. 식산과 영남우도 학인의 교류관계와 찬술한 문자를 분석해보면 덕천서원 원장직을 역임한 전후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結論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식산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기를 살아간 재야학자였다. 그는 전반기 34년은

-
- 192) 『息山集』에 「記江城君事」·「雲水堂河公行狀(河澗)」·「讀守愚堂實記(崔永慶)」·「成均生員盧公墓碣銘并序」·「江陽君李公墓碣銘并序(李瑤)」·「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行通訓大夫司樂寺正 玉洞文公墓碣銘并序(文益成)」·「松溪朴公墓碣銘并序(朴以炯)」·「處士朴公墓碣銘并序(朴大圭)」 등이다.
- 193) 『息山集』에 「醉軒金公詩集序(金益成)」·「文敬庵遺藁序(文東道)」·「无悶堂集序(朴綱)」·「江陽郡泛舟南江詩序」·「河氏家牒跋」·「百梅齋題語(李元益)」·「書河上舍應瑞樂天知命說後(河世應)」 등이다.
- 194) 『息山集』에 「德川書院重修還安文」·「大覺書院奉安文」·「鼎山書院奉安文」·「方丈新構記」·「梅菊堂記」·「三聽堂記」 등이다.
- 195) 『息山集』 卷13, 장1a~12a면에 실려 있는 「關西問答記疑」는 李全仁과 曹植 사이의 학술적 논쟁을 이전인의 입장에서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이만부의 이러한 태도는, “일찍이 李彥迪의 학문은 동방의 제일이라고 평가[先生嘗評, 晦齋學問, 爲東方第一云. 文錄 : 『退陶先生言行通錄』 卷5, 장35a면]”하고, 그의 행적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顯揚한 이황의 행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196) 「伽倻山記」·「南遊」·「三藏洞記」·「藥泉記」·「月影臺記」·「黃溪瀑布記」·「北歸記」·「德裕山記」·「猿鶴洞記」·「花林洞記」·「尋眞洞記」 등은 『地行錄』에 실려 있다.

서울에서 지냈고 후반기 36년은 영남에서 보냈다. 식산의 가계와 혼반관계는 근기와 영남지방의 남인계 명문가와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기지역은 성산이씨 · 삭녕최씨 · 전주이씨 등이고, 영남지역은 영천이씨 · 의성김씨 · 풍산유씨 등이다. 식산가의 학통은 퇴계학을 계승한 유성룡 계열과 근기남인의 학통인 정구-허목-정시한 계열 그리고 이민구와 조경 등 남인문단의 시맥을 계승하고 있다.

식산과 영남남인과의 교류관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상주권 서애 유성룡 계열 확인과 교류에서 식산은 유성룡의 증손녀와 혼반관계를 맺음으로서 상주 노곡에 이거하여 식산정사를 건립하고 강학한다. 주로 교류한 사람은 유성룡 · 정경세 · 이준 · 전식 · 황희 등의 후손들이고, 도학을 강론하여 풍속을 교화하려고 하였다. 또 상주로 찾아온 신유한과 이형상 등과 시문을 창수하고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하였다. 문경의 회음동으로 이주하면서 홍여하 · 이구 등의 후손 및 신필정 · 권상일 · 오상원 등과 교류하였고, 근암서원을 증축하여 도학을 강론하였다. 상주 북곽의 승곡으로 이주하여 조정과 노수신의 후예들과 교류하였고, 조천경과 노계원에 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다.

둘째 안동권 갈암 이현일 계열 확인과 교류에서 식산의 조부 이관징과 이현일의 관계를 통해 在京시절부터 종유하였다. 식산이 영남으로 이거했을 때는 안동지역은 김성일에 연원을 둔 갈암학파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현일이 1703년 귀양지에서 안동의 금양으로 돌아오자 식산은 자득하여 수립한 「천도유경설」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인가를 받고, 성리설에 대하여 일가를 이룬다. 식산은 1708년 『도동편』을 저술하여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피력하였고, 이재 · 권두경 · 김성탁 등과 교류하면서 이이의 이기설을 두고 학문적으로 대립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영남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되어 급기야 강우지역 금릉으로 이거하게 된다. 1732년 안동향교에서 『퇴도선생언행통록』 간행할 때 총괄 책임자였던 계부 이협과 함께 교정 작업에 참여하여 김성탁과 교류하게 된다.

셋째 강우지역 남명 조식 계열 학인과 교유에서 강좌지역 검허한 퇴계학과 강우지역 실천적인 남명학의 학문적 성향이 다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식산은 영남지역 학풍의 장단을 파악하여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입장보다 절충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교유하였다. 무신란이 일어났을 때 식산은 직접 격문을 지어 창의를 돕고 이들을 창의에 가담하게 한 행동에서, 敬의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성향을 볼 수 있다. 식산은 1721년부터 1725년까지 덕천서원 원장을 하며 교유한 인물은 김성운·하세웅·신명구 등이다. 『식산집』에 실려 있는 강우지역 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하세웅 9통·김성운 5통·신명구 2통·하대연 7통·하서룡 4통·이성침 4통 등 31통이 전한다. 그리고 강우지역에 관한 글을 많이 지었다.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유관계의 일단을 검토한 결과, 35년간 영남에서 살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교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식산의 교유양상을 영남남인에 제한하여 검토했기 때문에 근기남인과의 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했다. 허목 계열의 학통을 이어 근기남인의 학맥을 계승한 여주이씨 이익, 전주이씨 이수광, 안동권씨 권대운, 동북오씨 오억령, 압해정씨 정시한, 해남윤씨 윤선도 가문, 그리고 당색이 다른 소론계 반남박씨 박세당, 전주최씨 최석정, 경주이씨 이세필, 풍양조씨 조문명 가문과 식산과의 교유양상과 학문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투고일 : 2008.9.25 / 심사일 : 2008.10.22 / 심사완료일 : 2008.12.9>

참고문헌

1. 資料

- 權斗經, 『蒼雪齋集』, 『韓國文集叢刊』 169책, 민족문화추진회, 1996.
- 權相一, 『淸臺全集』 2冊, 驪江出版社, 1989.
- 權以鎭, 『有懷堂集』, 『韓國歷大文集叢書』 596책, 景仁文化社, 1993.
- 金聖運, 『珠潭集』, 『韓國歷大文集叢書』 2180책, 景仁文化社, 1997.
- 金聖鐸, 『霧山集』, 『韓國文集叢刊』 206책, 민족문화추진회, 1998.
- 宋近洙, 『宋子大全隨笥』, 『韓國文集叢刊』 116책, 민족문화추진회, 1993.
- 申命考, 『南溪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申正模, 『二恥齋文集』, 『韓國歷大文集叢書』 651책, 景仁文化社, 1993.
- 安鼎福, 『順菴集』, 『韓國文集叢刊』 230책, 민족문화추진회, 1999.
- 柳成龍, 『西厓全書』 4冊, 西厓先生紀念事業會, 1991.
- 李敬儒, 『滄海詩眼』, 筆寫本, 權泰文氏 所藏.
- 李東標, 『懶隱集』 1冊, 新興印刷所, 1991.
- 李萬敷, 『息山全書』 3冊, 여강출판사, 1993.
- 李萬敷, 『息山集』, 『韓國文集叢刊』 178~179책, 민족문화추진회, 1996.
- 李萬敷, 李萬維 共編, 『芹谷致政公年譜 附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民成, 『敬亭集』, 『韓國文集叢刊』 76책, 민족문화추진회, 1991.
- 李 澈, 『弘道遺稿』, 『近畿實學淵源諸賢集』 1책,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晬光, 『芝峰集』 1冊,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 李 沃, 『博泉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 李 灝, 『星湖全書』 7冊, 李佑成 編, 驪江出版社, 1984.
- 李 灝,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9~200책, 민족문화추진회, 1997.
- 李 潛, 『剡溪遺稿』,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책,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 栽, 『密庵全集』 2冊, 李章佑 編, 驪江出版社, 1986.
- 李 埶, 『月澗集附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獻慶, 『艮翁集』, 『韓國文集叢刊』 234책, 민족문화추진회, 1999.
- 李玄逸, 『葛庵全集』 2冊, 裴宗鎬 編, 退溪學派諸賢集 3, 驪江出版社, 1986.
- 李 滉, 『增補退溪全書』 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 李衡祥, 『瓶窩集』, 『韓國文集叢刊』 164책, 민족문화추진회, 1996.

- 丁範祖, 『海左集』, 『韓國文集叢刊』 239~240책, 민족문화추진회, 1999.
- 丁時翰, 『愚潭全集』 1冊,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5.
-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책, 민족문화추진회, 2002.
-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책, 민족문화추진회, 1991.
- 鄭宗魯, 『立齋集』, 『韓國文集叢刊』 254책, 민족문화추진회, 2000.
- 趙 綱, 『龍洲遺稿』, 『韓國文集叢刊』 90책, 민족문화추진회, 1992.
- 曹 植, 『南冥集』, 『韓國文集叢刊』 31책, 민족문화추진회, 1989.
- 趙顯命, 『歸鹿集』, 『韓國文集叢刊』 212~213책, 민족문화추진회, 1998.
- 蔡濟恭, 『樊巖集』, 『韓國文集叢刊』 236책, 민족문화추진회, 1999.
- 河世應, 『知命堂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河世應, 『知命堂遺集』, 경상대학교 문전각 소장.
- 河弘道, 『謙齋集』, 『韓國文集叢刊』 97책, 민족문화추진회, 1992.
- 許 穆, 『記言』 『韓國文集叢刊』 98~99책, 민족문화추진회, 1992.
- 許 穆, 『眉叟集』 6冊, 『韓國歷代文集叢書』, 484~489책, 景仁文化社, 1987.
- 洪汝河, 『木齋集』, 『韓國文集叢刊』 124책, 민족문화추진회, 1994.
-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解題』, 1~5책, 민족문화추진회, 2001.
- 李離和 珣, 『南譜』, 『朝鮮黨爭關係資料集』 16책, 여강출판사, 1987.
- 『萬姓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韓國系行譜』 天·地·人, 寶庫社, 1992.
- 延安李氏三陟公派譜所 編, 『延安李氏三陟公派譜』, 延安李氏三陟公派譜所.
- 顧學頡 校點, 『白居易集』 4冊, 中華書局, 1999.
- 『禮記』, 保景文化社, 1995.
- 『性理大全書』 卷70.

2. 著書

- 權泰乙(1996), 『息山 李萬敷의 文學研究』, 文昌社, 19~31; 209~215면.
- _____(2005), 『漢文學研究 -尙州地域을 중심으로-』, 文昌社, 31면; 369면.
- 민족문화연구소 편(2001), 『밀암 이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신호열, 김명호 옮김(2004), 『국역연암집』 2, 민족문화추진회.
- 유형원(1990), 『礪溪雜藁』, 여강출판사, 293~302면.
- 李樹健(1995),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418면; 37~38면.
- 이상필(2005), 『남명학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 李佑成(1982),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이종호(2004),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67~311면.
 이지형(1996),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이승화(2001), 『연안이씨의 사마시와 문과시』, 뿌리문화사.
 진재교(2001),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사.

3. 論文

- 姜周鎭(1998), 「許眉叟의 삶과 學統」, 『許眉叟의 學·藝·思想 論攷』, 眉叟硏究會.
 權泰乙(1993), 「『息山全書』해제」, 『息山全書』 一, 여강출판사, 5~20면.
 _____(1988), 「息山 李萬敷의 書 연구-학문상에 나타난 비판정신을 중심으로-」, 『石霞 權寧徹 教授回甲紀念 論文集』, 국문학연구논총, 효성여대, 23~44면.
 _____(1989), 「滄海詩眼 考察」, 『영남어문학』 16집, 영남어문학회.
 _____(2000a), 「李息山이 南冥學派에 끼친 學問上 影響考」, 『한민족어문학』 36집, 한민족어문학회.
 _____(2000b), 「李息山이 南冥學派에 끼친 文學的 影響考」, 『상주문화』 10호, 상주대학교.
 金泳(1993), 「訥隱文學의 世界觀的 基盤」,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61~68면.
 김학수(1995), 「갈암 이현일 연구 -경세론과 학통관계를 중심으로-」, 학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8~110면.
 李樹健(2001), 「밀암 이재 가문과 영남학과」, 『밀암 이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_____(1990), 「朝鮮後期 ‘嶺南’과 ‘京南’의 提携」,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碧史李佑成教授 定年退職紀念論叢, 창작과 비평사, 1990, 834면.
 _____(2000), 「조선후기 영남학과 연구」, 『민족문화논총』 2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李佑成(1982), 「한국 유학사상 퇴계학맥의 형성과 그 전개」, 창작과 비평사, 92~93면.
 全柄哲(1996), 「蒼雪齋 權斗經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진재교(2001), 「진택 신광하의 『북유록(北游錄)』과 『백두록(白頭錄)』」,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사, 362~364면.
 許捲洙(1996), 「龍洲 趙綱과 嶺南 南人과의 교류에 관한 연구」,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_____(1996), 「霧山 金聖鐸의 사상과 문학 : 霧山 金聖鐸의 學問觀과 嶺南儒林에서

의 役割』,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_____(2006), 『近畿南人學者들의 南冥에 대한 關心』, 『남명학연구』 2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Abstract

A Study upon Academic Achievements & Associations Made and Pursued by Lee Man Bu with the Nom De Plume of Siksán

-Focusing on the pro-Namin scholars in Yeongnam-

Kim, Joo-boo

Lee Man Bu with the nom de plume of Siksán addressed in this study was a scholar who had lived out-of-office lives for the years 1664 to 1732, of which the first 34 years found his growth in a city "Hanyang" while he lived in a province "Yeongnam" for the rest of the years thereafter. A careful observation of the genealogy and marital relationships of his family will make you see that it had related to pro-Namin noble families in provinces including Geungi and Yeongnam. Its scholastic mantle dates back to Yu Seong Ryong clique succeeding to Lee Hwang with the nom de plume of Toegye, and to Jeong Gu, Heo Mok and Jeong Si Han clique belonging to pro-Namin scholars in Geungi. When it comes to poetry and prose it pursued, it inherited Lee Min Gu and Jo Mok from pro-Namin scholars.

Companionships made between Siksán and pro-Namin scholars in Yeongnam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in its nature.

The first is the one with scholars belonging to Seo Ae clique in a city "Sangju." He quit government service and moved to Nogok in Sangju by formulating a marital relationship to Yu Seong Ryong's great-granddaughter, so that he established a academic garden called "Siksán Jeong Sa" for studying and researching. Persons he made and enjoyed companionships with included the descendants of Yu

Seong Ryong, Jeong Gyeong Se, Lee Jun, Jeong Sik, etc. He expounded Taoism to enlighten people by correcting public morals. He also enjoyed poetry and prose, and academically discuss by letter with a new Confucian scholar Lee Hyeong who visited Sangju. As he moved to a city "Mungyeong," he associated with the descendants of Hong Yeo Ha, Lee Gu, etc., and with Sin Pil Jeong, Gweon Sang Il, O Sang Weon, etc. He enlarged a private school "Geun Am Seon Weon" there to expound Taoism. Then, after he moved to Seungok around the northern of Sangju, he associated with the descendants of Jo Jeong and No Su Sin, and inherited his principles to Jo Cheong Gyeong and No Gye Weon.

Second, he got along with scholars belonging to Galam (Lee Hyeon Il) clique in a city "Andong." Actually, he had continued to associated with them through relations with their grandfather Lee Gwan Jing and Lee Hyeon Il since he stayed in Hanyang. When he moved to Yeongnam, scholars belonging to Galam clique with its origin traced to Kim Seong Il had had great influences around Andong. In 1703 when Lee Hyeon Il was released and returned from his exile to Andong, he sought from him advice about a principle so called "Cheon Do Yu Gyeong Seol" he established by understanding a truth by himself from him, and obtained an approval from him to form a school of "Seong Li Seol." To express his own academic point of view, he wrote a book "Do Dong Pyeon" in 1708, and associated with Lee Jae, Gweon Du Gyeong, Kim Seong Tak, etc. But he academically conflicted on Lee I's principle "I Gi Seol" with them sometimes. In 1732 when he published and corrected a book called "Toe Do Seon Saeng Eon Haeng Tong Rok" with the youngest brother of his father Lee Hyeop in charge of doing so at Andong Hyanggyo a local school annexed to the confucian shrine, he associated with Kim Seong Tak.

Third, he associated with scholars belonging to Nammyeong (Jo Sik) clique in a

region "Gangu," where he experienced an academic difference in nature between a modest principle "Toe Gye Hak" in a region "Gangjwa" and a practical principle "Nammyeong Hak" in Gangu. However, he adopted an eclectic and balanced position rather than an exclusive and extreme one between them by identify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academic traditions in Yeongnam. When a civil war during the 45th binary term of the sexagenary cycle called "Musin Ji Ran" broke out, he made a nationwide appeal in writing to help raise up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and to made his son join the army, which shows his academic attitude toward thinking highly of putting a virtue of reverence into practice. Serving as principal of a private school called "Deokcheon Seo Weon" for the years from 1721 to 1725, he associated with Kim Seong Un, Ha Se Eung, Sin Myeong Gu, etc. A collection of his works *Siksan Jip* contains letters exchanged with scholars in Gangu and other writings extolling sages in the same region.

A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associations pursued and made by Lee Man Bu with the nom de plume of Siksan showed that he had made a wide range of complicated and multilateral associations for 35 years in Yeongnam. This study limited his associations to pro-Namin scholars in the same region, which suggests that those with pro-Namin scholars in Geungi wasn't concretely covered in the study. The future study will address his associations with pro-Namin scholars in Geungi inheriting academic traditions pursued by Heo Mok clique, and scholars belonging to "So Ron" clique with utterly different politically tone.

Key words: Siksan Lee Man Bu, associations, Geungi Namin, Yeongnam Namin, "Do Dong Pyeon", Nammyeong clique in a region "Gangu"

